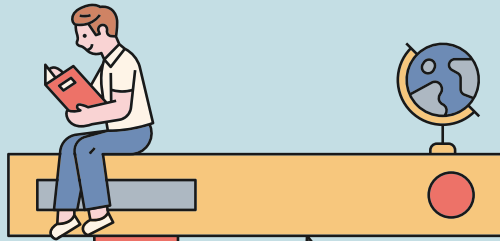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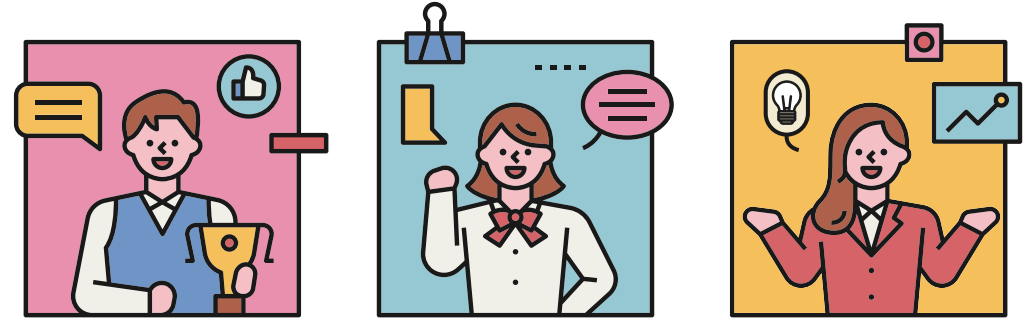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폐광지역에서 키우는 내일의 꿈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폐광지역에서 키우는 내일의 꿈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은 전국 폐광지역의 중고등학생과 전국 폐광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을 연결하는 따뜻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고서는 10개월간 하이디와 하이샘으로 만나 서로를 도우며 성장한 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철규입니다.

먼저,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여정을 멋지게 끝낸 장학생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장학생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간 후배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고민하고, 그 열정어린 가르침에 보답하는 과정에서 장학생 모두가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장학생 여러분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강원랜드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장학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 끝에, 지금의 선도적인 지역인재 육성 사회공헌 모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멘토링 활동을 가득 채워준 장학생 여러분의 열정 덕분입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강원랜드는 장학생들이 다채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진로박람회, 사회인 멘토링, 해외탐방 등 전방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멘토링 장학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폐광지역의 희망인 미래인재들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강원랜드가 항상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사단법인 점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학생 여러분이 걸어갈 앞날에 기쁨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단법인 점프 대표 은초롱입니다.

우선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하이디, 하이샘 여러분, 진심으로 수료를 축하합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정성 있게 꾸준히 진행해 주시는 강원랜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폐광지역 미래 세대들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하며 사무국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폐광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각지로 흩어져 바쁜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도 고향에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학습을 도와주는 하이샘(멘토), 또 하이샘을 롤모델 삼아 꿈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하이디(멘티)를 통해 공동체가 주는 소중한 가치들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무국은 전국 폐광지역의 미래세대를 연결하고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이샘, 하이디 모두 자신의 가치를 믿고 다양한 기회를 만나며 각자의 꿈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4년에 펼쳐질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료를 축하합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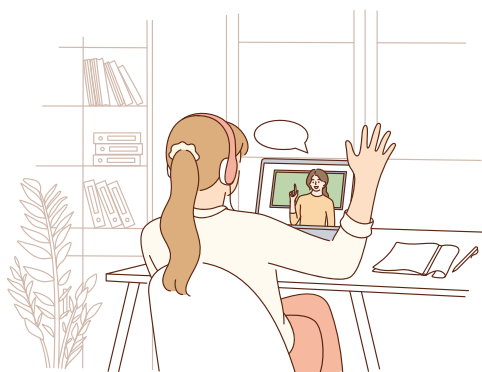
01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소개합니다

- 008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 010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히스토리
- 012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임팩트 인사이트



02 함께 배우고 나누며 즐거웠던 시간들을 소개합니다

- 018 Ep 1.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하이쌤, 하이디로서 준비하기
- 020 Ep 2. 하이쌤, 하이디가 되다
- 022 Ep 3. 우리들의 든든한 숨은 조력자, 사회인 멘토와 함께
- 032 Ep 4. 하이쌤, 하이디의 역량을 부스트 업! 부스팅 캠프
- 036 Ep 5. 다채로운 꿈을 향한 여정을 떠나기 꿈키움 페스티벌
- 038 Ep 6.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RE:START TOGETHER!
- 040 Ep 7. 글로벌 인재로 JUMP! 미리 보는 해외탐방



03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짜깁 인터뷰

- 044 열정으로 뚝뚝 뚫은 서로의 디딤돌
강유진 하이쌤 + 김승현·박여경 하이디
- 048 함께일 때 더 강한 우리
김수란 하이쌤 + 정다윤·최서영·최지혜 하이디
- 052 너도 나도 처음, 함께 한 뼘씩 성장한 우리
박도연 하이쌤 + 김동국·최현준 하이디
- 056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한 우리
이희수 하이쌤 + 노은혜·최대범 하이디
- 060 파인애플 피자 같은 우리,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임예찬 하이쌤 + 김세민·임은후 하이디
- 064 물과 땅처럼 때려야 뭍 수 없는 웃음 공동체
김경우 하이쌤 + 엄성식·윤준환 하이디
- 068 함께하면 즐거운 우리는 친구
전이령 하이쌤 + 유지민·진현하 하이디
- 072 뭉치면 시너지 나는 우리
황루안 하이쌤 + 최지후 하이디

하이쌤 인터뷰

- 076 더 큰 사람이 되는 법, 더 제대로 살아내는 법 배웠어요
정선 김서인 하이쌤
- 078 나 자신을 단단하게 키워준 시간
태백 김희성 하이쌤
- 080 하이디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 됐어요
하순 이소민 하이쌤
- 082 평생 가지고 갈 울골은 삶의 자세 배웠어요
문경 홍석환 하이쌤



하이디 인터뷰

- 084 받은 만큼, 따뜻한 마음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문경 양예지 하이디
- 086 나를 이해하고 믿는 법을 배웠어요
하순 이승우 하이디
- 088 우중충한 시간 속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
영월 이연우 하이디
- 090 누군가를 선뜻 돕는, 따뜻한 사람 되고 싶어졌어요
영월 현석주 하이디
- 092 홍보대사 하이ON 인터뷰
김다빈·민주현·박채원·심예지·이상하·이유진·최우영 하이쌤

04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 098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성장 기록
하이쌤 활동 보고서, 하이디 성장 포트폴리오
- 102 나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란
- 104 엔딩 메시지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소개합니다

전국 폐광지역 미래세대에게 정서적 안정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돕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2023년 한 해 동안 거둔 성과와 걸어온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008-009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010-011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히스토리

012-015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임팩트 인사이트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전국 폐광지역(정선·태백·영월·삼척·문경·보령·화순) 중·고등학생 및 전국 폐광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통한 학업의 집중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인적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강원랜드의 대표적인 교육 장학사업입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폐광지역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진 청소년과 대학생이 매주 온라인으로 만나 맞춤형 학습·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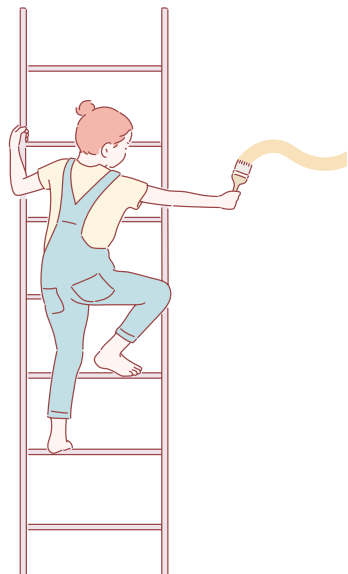
지도 및 정서 지원 멘토링을 수행합니다. 멘토링을 통해 폐광지역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 포용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질병, 사고 등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전국 폐광지역 중·고등학생 및 지역 출신 대학생은 강원랜드 SOS 장학금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2년엔 2020년부터 멘토링을 접목한 강원랜드의 장학사업은 폐광지역의 멋진 내일을 만들기 위해 IMPACT를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역 사회에 어떤 가치와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연구하고 폐광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기에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링, 네이밍 우수사례 공모전, 공부의 숲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엔 함께 성장하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장학생 커뮤니티 확대로 나눔의 선순환 확산! 전국 폐광지역으로 대학생 선발 지역 및 인원이 확대되었어요! 전국 폐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줄, 문경, 보령, 화순 고교 출신 대학생들이 새롭게 선발되었거든요.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가 팀을 이루어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부스팅 캠프' 프로그램부터 대학생 홍보대사 '하이ON'이 활약한 '멘토링데이'까지 새롭게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2023년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어요.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사업 전략 체계 재정립까지!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지켜봐 주세요!

	2022년	2023년
활동기간	10 개월 2022. 5. ~ 2023. 2.	10 개월 2023. 5. ~ 2024. 2.
활동인원	하이샘 138 명 하이디 495 명	하이샘 167 명 하이디 471 명
멘토링 총시간 (하이샘 누적 기준)	15,656.5 시간	17,894 시간



하이샘·하이디를 소개합니다

청소년의 성장을 견인하고 함께 나아가는 대학생 멘토, 하이샘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의 장학생이자 나눔을 실천할 선생님, 하이샘은 대학생 멘토입니다.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문경, 보령, 화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로, 지역 후배들을 위한 교육 나눔을 실천합니다. 하이샘은 청소년 멘티(하이디)와 ZOOM을 통해 매주 4시간씩, 10개월 동안 꾸준히 만나며 학습부터 친구 관계, 취미와 관심사, 직업과 진로까지 다양한 주제로 정보와 고민을 나누고 신뢰 기반의 유대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사회인 멘토링에 참여해 사회인 멘토를 만나 대학 생활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취업 등 진로를 탐색하는 열정적인 멘티가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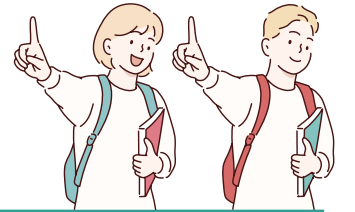
hi:SAM



꿈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 멘티, 하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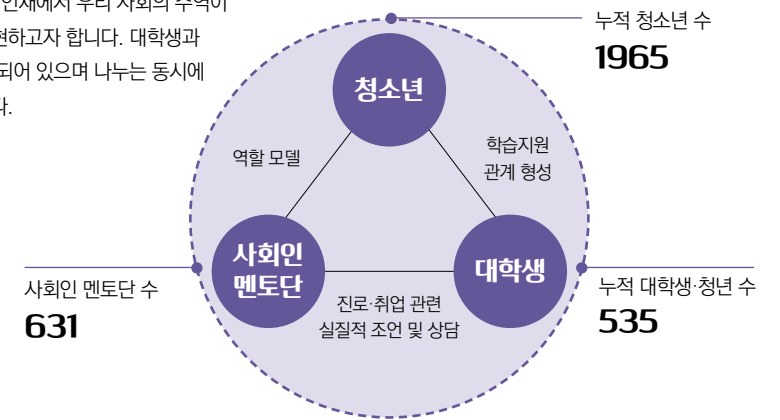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의 장학생이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의 미래 인재, 하이디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청소년 멘티입니다. 전국 폐광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전국 폐광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꿈나무입니다. 든든한 지역 선배인 하이샘과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자신만의 꿈과 가능성을 찾고 키워 나갑니다. 장학금을 통해 안정된 생활 속에서 학업의 집중을 도모하고, 온라인 멘토링뿐만 아니라 부스팅 캠프, 꿈키움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잠재력과 역량을 강화합니다.

hi:D



삼각 멘토링

하이디가 하이샘으로, 하이샘이 사회인 멘토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업을 통해 미래 인재에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기까지 나눔의 선순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학생과 청소년은 '폐광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누는 동시에 배움을 얻으며 동반 성장합니다.



*** 알럼나이란**
졸업생/수료생의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 'Alumni'를 차용해 활동을 마친 모든 수료생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10개월간의 하이샘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리더십을 기르고, 활동을 수료해도 지속해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커뮤니티에서 교류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사람이 연결돼 다음 세대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의 고리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히스토리



2008년

- 하이원 장학사업 시작
 - 강원 폐광지역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삼성꿈장학재단' 위탁 운영

2011년

- 수혜대상 확대
 - 강원 폐광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 지원

2016년

- 사업 운영 방식 변경(위탁 운영 → 직접 운영)
- 사업 명칭 변경(하이원 꿈장학 → 강원랜드 장학)
- 중·고등학생 수혜지역 확대(강원 폐광지역 → 전국 폐광지역)
- 중·고등학생 지원분야 확대
 - 우수(학업 및 예능) 장학생 지원

2018년

- 장학사업 추진 체계 및 비전 수립(나눔/키움/SOS 장학)
- 신청 및 선발 방식 개선
 - 소득 증명 최소화로 학생 인권보호 장학사업 전개

2019년

- 장학생 성장 프로그램 도입(학습 컨설팅, 취업 멘토링 등)
- 사업 파트너십 체결(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2020년

- 사업 명칭 개선
 - 하이원 장학사업 →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 장학생 멘토링 활동 및 장기지원제도 도입
- 사업 협력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학교), 교육전문기관 등
- 예능 장학생 시범지원
 - 전국 폐광지역 미술 분야 재능 보유 청소년
-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운영
 - 미래교육(디자인생강), 진로 박람회(꿈키움 페스티벌) 등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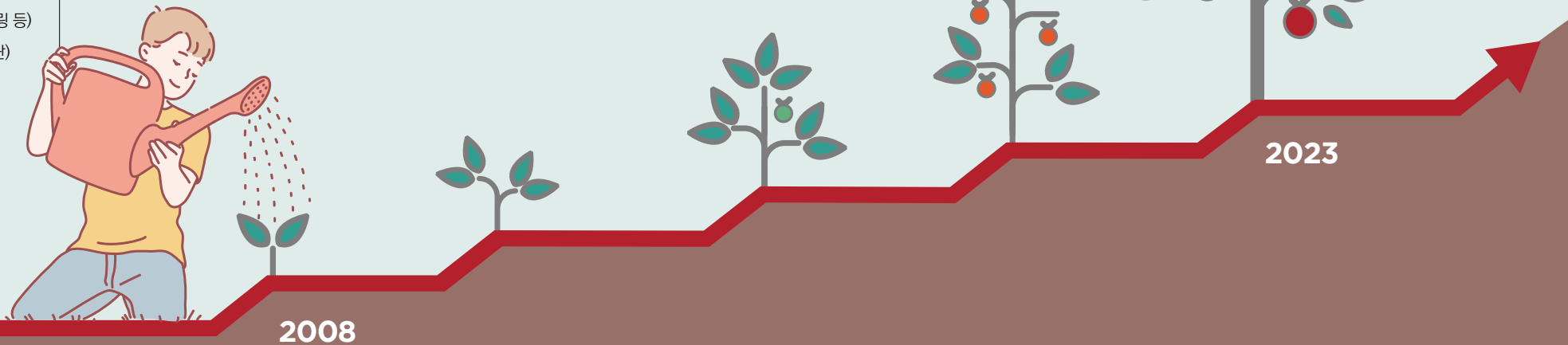
- 강원랜드 임직원 사회인 멘토링 프로그램 시범 운영
- 홍보 서포터즈 '하이ON' 1기 운영
- 강원 폐광지역 청소년 학습 역량 강화 연구 진행
- EBS 미래교육 플러스 방영 '꿈의 씨앗을 심는 멘토링'

2022년

- 강원 폐광지역 청소년 학습 역량 강화 연구 보고 및 심포지엄 개최
- 강원랜드 임직원 소그룹·단체 멘토링 진행
-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네이밍 공모전 진행
- 활동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진행
- 유튜브 크리에이터 협업
 - 공부 유튜버, 구슬जू와 '공부의 숲 프로젝트' 진행
- 알림이와 함께하는 '올-투게더 네트워킹 DAY' 진행
- 활동 최우수자 미국 해외탐방 진행

2023년

- 대학생 멘토 선발 지역 및 인원 확대(강원 폐광지역 → 전국 폐광지역)
- 강원 외 폐광지역(문경·보령·화순)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시범 운영
- SOS 장학생 선발지역 확대 및 지원 기준 완화
- 1박 2일 오프라인 캠프, '부스팅 캠프' 프로그램 진행
- 홍보 서포터즈에서 홍보대사 '하이ON'으로 형태 전환
-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전략 체계 재정립(비전, 미션, 목표 등)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임팩트 인사이트

10개월간의 멘토링 활동과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하이샘과 하이디는 눈부신 동반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거둔 성과를 소개합니다.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하이디의 88.4%, 하이샘의 97.3%가 멘토링 프로그램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만족한다



하이디

하이샘

추천 의향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을 묻자, 대부분의 하이디와 하이샘이 ‘추천할 것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형제-자매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하이디

하이샘

사무국 평가

“하이디와 하이샘은 참여자의 성장을 위한 사무국의 의사소통과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무국과 의사소통 만족도



참여자의 성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긍정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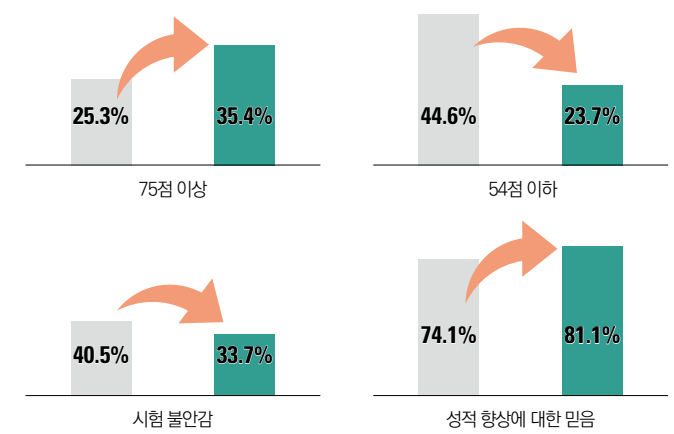


하이디의 성장

학습 역량 강화

“하이디는 하이샘과의 멘토링을 통해 시험 불안감을 낮추고, 성적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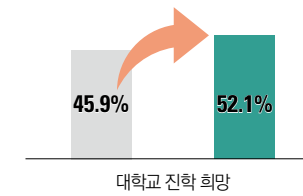
75점 이상(상위권) 비율은 높아지고, 54점 이하(하위권) 비율은 감소



자기효능감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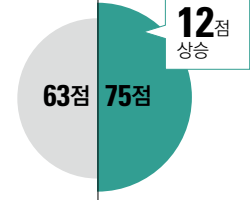
“하이디는 멘토링을 통해 진로 계획을 확장하고,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협업하는 태도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렀습니다.”

청소년 희망 교육 수준 변화



대학교 진학 희망

협업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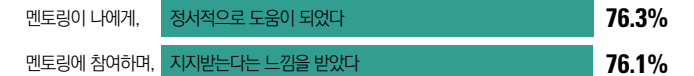
정서지원 및 관계 형성

“따뜻한 하이샘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스스로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이샘의 격려와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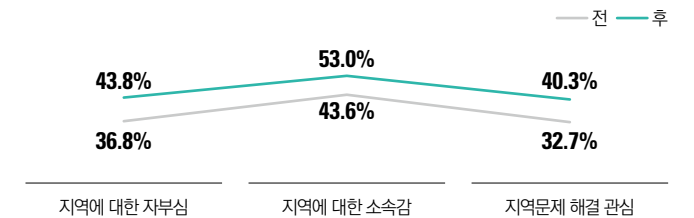


하이디의 정서적 변화 향상



지역인재로 성장

“살아가는 지역에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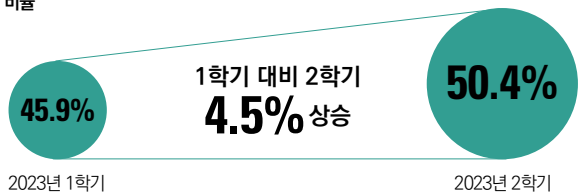


하이샘의 성장

학습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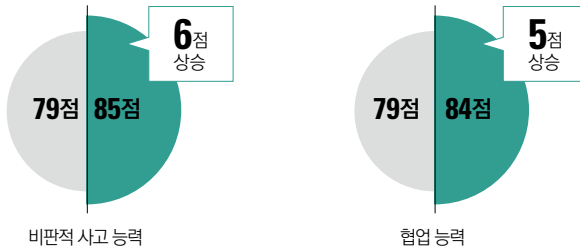
“하이샘은 장학금을 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A학점 비율



소프트스킬 강화

“하이디, 동료 하이샘과 협업하고 다양한 관점을 나누며 하이샘의 소프트스킬이 탄탄하게 강화되었습니다.”



※ 소프트스킬: 의사소통·책임의식·비판적 사고·문제 해결·창의적 사고·협업 능력

진로 계획 확장

“하이샘은 사회인 멘토링에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폭넓게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뚜렷한 진로, 적성 계획



다양한 진로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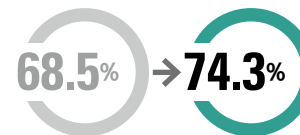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관 성장

“공정한 교육 기회의 주제로 활동하며, 하이샘은 교육 분야를 비롯해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전인적 인재로 발돋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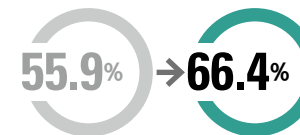
지역에 대한 인식 개선

“하이샘은 하이디와 같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으로 유대감을 느끼며 지역사회에 관심과 기여도를 향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 관심도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



우리 지역에 대한 소속감



지역사회 기여노력



고향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함께 배우고 나누며 즐거웠던 시간들을 소개합니다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는 하이쌤과 하이드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10개월간의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사전교육부터 부스팅 캠프, 사회인 멘토링,
꿈키움 페스티벌에 활동 최우수자를 위한 해외탐방까지
더 알차고 실속 있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018-019

Ep 1. <사전교육>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하이쌤, 하이드로서 준비하기

020-021

Ep 2. <발대식>

하이쌤, 하이드가 되다

022-031

Ep 3. <사회인 멘토링>

우리들의 든든한 숨은 조력자, 사회인 멘토와 함께

032-035

Ep 4. <부스팅 캠프>

하이쌤, 하이드의 역량을 부스트 업!

036-037

Ep 5. <꿈키움 페스티벌>

다채로운 꿈을 향한 여정을 떠나기

038-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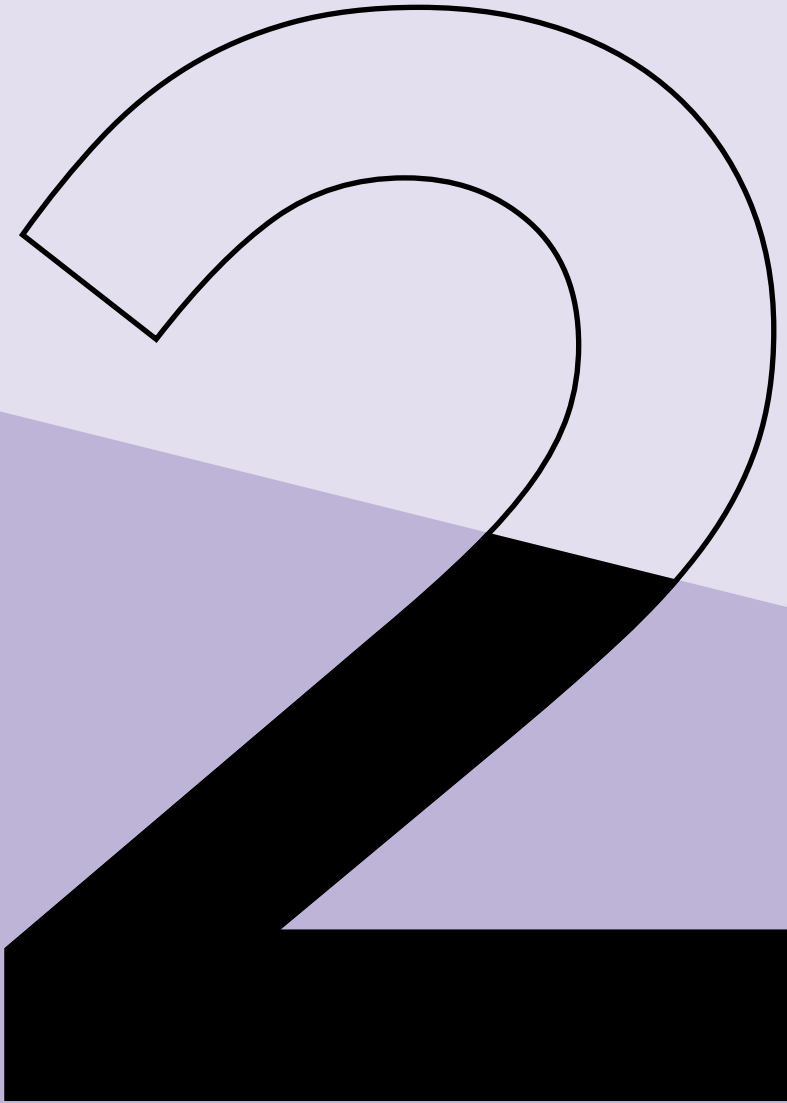
Ep 6. <수료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RE:START TOGETHER

040-041

Ep 7. <해외탐방>

글로벌 인재로 JUMP! 미리 보는 해외탐방





EP1.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하이쌤, 하이디로서 준비하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하이쌤, 하이디의 본격 출발을 앞두고 하이쌤, 하이디로서 준비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했어요. :)

하이디에게는 장학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 하이쌤에게는 하이디와의 즐겁고 원활한 멘토링을 위한 관계 형성, 멘토링 툴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사전교육을 통해 하이디, 하이쌤들은 앞으로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이디&하이쌤으로의 설레는 첫 출발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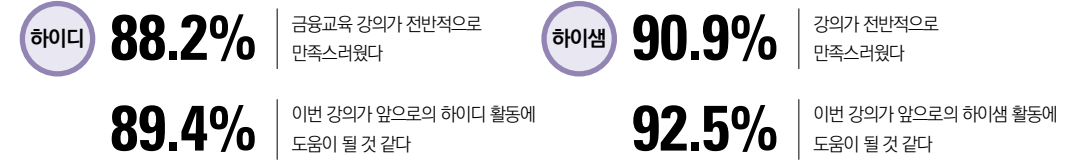
행사명 온라인 사전교육

일 시 2023.5.30~2023.6.16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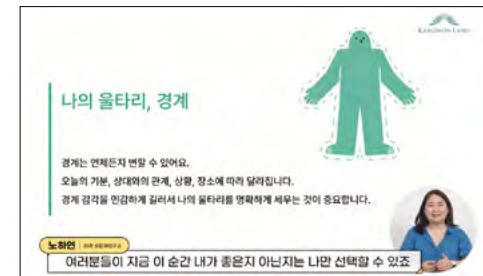
대상	교육 주제	강의 제목
하이디	금융교육	슬기로운 장학금 생활-현명한 지갑관리 방법(feat.가계부)
하이쌤(공통)	성인지교육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멘토링 방법-하이디와 안전한-평등한 관계 맺기
하이쌤(신규)	온라인 멘토링 이해 교육(기초)	차고 일어나니 온라인 멘토링 마스터?!-효과적인 온라인 툴 사용법
	청소년 이해 교육(기초)	하이디와 함께, 발맞춰 걷는 멘토가 된다는 것
하이쌤(장기)	온라인 멘토링 이해 교육(심화)	하이!! 메타버스-메타버스로 쌍방향 멘토링 하는 법
	청소년 이해 교육(심화)	하이쌤도 하이디도 토닥토닥-마음을 돌보는 멘토링 방법

만족도 조사



생생 후기

- 하이디**
 - 사실 아직은 돈에 관한 개념이 미숙한 점이 많은데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교육을 받으니 좋은 경험이었다.
 -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내용을 이번 기회로 배우게 돼서 매우 좋았다. 지금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2년 뒤엔 내가 직접 번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돈 관리를 열심히 해서 습관을 들여야겠다.
- 신규 하이쌤**
 - 하이쌤의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권위적인 질문이나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행동과 언행에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이디에게 다가갈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해야겠다.
 - 우리가 흔히 쓰는 '선 넘지 마라'의 뜻을 강의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경계 침범이 무엇이고 경계를 침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거절한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멘토링에 사용할 자료가 없어서 난처했는데 강의에서 알려준 툴을 사용하면 이런 걱정도 덜고 더 수월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의에서 나온 툴을 토대로 더 완벽한 수업을 진행하겠다.
- 장기 하이쌤**
 - 이번에 들은 교육 중 최고의 교육! 직접 스토르크를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 강의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은 몽글몽글한 교육이었다.
 -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이 제 멘토링의 범위를 넓혀준 것 같아 특히 뜻깊었다. 시대변화에 맞는 사전교육에 감사하다.





1

EP2.

하이쌤, 하이드이가 되다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5월의 어느 날.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하이쌤, 하이드이로서 첫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이 진행되었어요!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하이쌤, 하이드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와 사단법인 점프의 따뜻한 환영사부터 하이쌤, 하이드이의 10개월을 응원하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 담긴 웰컴 영상까지! 장학 증서 수여와 성실한 활동을 약속하는 활동 소감을 통해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이쌤, 하이드이가 되었습니다. 발대식 이후에는, 하이쌤 하이드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설렘 가득했던 하이드이-하이쌤의 첫 만남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후에는 하이쌤, 하이드이의 활동 가이드를 안내했어요. 10개월 동안 하이쌤, 하이드이들의 성장을 도울 성장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활용 방법, 장학금 사용 등 원활한 활동을 도울 정보들을 전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결코 짧지 않은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로서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



3

1. 하이쌤에게 장학증서 수여.
2. 하이드이에게 장학증서 수여.
3. 김수란 하이쌤의 활동소감 발표
4. 박예슬 하이드이의 활동소감 발표
5. 멘토링 짜공의 재미를 확인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개요

행사명 발대식
일 시 2023.6.10.(토) 13:00~16:00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1부, 발대식	오프닝 - 내빈 소개 및 웰컴영상 시청 - 격려사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소개
	장학증서 수여
2부, 장학생 OT	장학생 소감 발표
	하이드이-하이쌤 케미를 알아보는 아이스브레이킹
	장학생 활동 오리엔테이션 손미나 작가님과 함께하는 연사 특강

만족도 조사

88.1%

발대식을 통해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

91.7%

앞으로의 장학생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생생 후기

- 첫 발대식이라 설레기도 했고 마음이 부풀었다. 이 감정 그대로 10개월간 멘토링을 열심히 하며 나 자신의 성장을 포함해 하이드이들의 성장 또한 이뤄내겠다.
- 앞으로 멘토링 활동 방향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하이드이와 अच्छ고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새출발의 즐거움을 다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앞으로의 행보가 점점 기대된다.
- 같은 폐광지역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장학증서라는 것을 통해 소속감 또한 얻을 수 있어서 뜻깊었다



4



5



'멘토링데이'에 참여한 하이생들.

EP 3.

우리들의 든든한 숨은 조력자, 사회인 멘토와 함께

막막한 진로 앞에, 부족한 정보 때문에 고민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든든한 조력자 '사회인 멘토단'과 함께 약 10개월간의 사회인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올해는 다양한 주제 아래 24명의 멘토님과의 멘토링이 진행되었는데요.

하이생과 하이디를 늘 멀리서 응원하고 있는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와의 시간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링 week', 하이디와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하이디와 함께 듣는 멘토링 week' 뿐만 아니라 하이생들의 고민 타파, 취향 저격!

하이생들의 네트워킹 파티 '멘토링데이'까지!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진행된 멘토링인 만큼 의미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든든한 조력자 사회인 멘토단과 함께한 알찬 배움의 시간, 함께 살펴볼까요?



프로그램 개요

행사명 사회인 멘토링

일 시 2023.07~2024.02(총 24회 진행)

소그룹 멘토링

더 많이 경험해 보라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나의 가치를 찾아서

별내고등학교, 김보라 멘토
23.7.27(토), 오프라인



● 최근 일어난 교사 관련 이슈로 인해 교직에 대한 회의감에서 신청한 멘토링이었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멘토링에서 중요한 답을 얻게 되었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지금의 어려움 또한 나의 경험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1초 뒤에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 속에서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나에 대한 확신이라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민 또한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믿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히 살아가야 하니까요.

●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멘토링은 멘토님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넉넉해 더 깊고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에 도전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동료 하이생, 매니저님, 멘토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내면이 더 단단한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당탕탕 대학생할 :
NGO에서 공기업으로 꿈이 바뀌게 되기까지

강북구 보건소, 최예슬 멘토
23.9.15(금), 오프라인



●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적은 인원 수로 진행되다 보니, 멘토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질문해주시고, 저희가 드린 질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매력적인 멘토링 시간이었어요. 또한, NGO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직접 경험하신 NGO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저 또한 이뤄낸 꿈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실 제가 희망하는 진로와는 거리가 많이 멀지만, 자신의 특기를 살려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을 하시고 이것이 직업으로 이어졌다는 스토리가 흥미로웠습니다. 현재는 학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방학기간 혹은 여유로운 시간이 된다면 저의 특기를 살려 대외활동 혹은 봉사활동을 진행해보면 사회공헌 활동도 하면서 개인 커리어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전공은 유아교육이지만 내가 많은 것을 시도하고 경험하다 보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시점에 더 많은 경험을 해보자, 다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나만의 기록 장소 만들기 : 내 경험과 감정은 여기에

상상우리, 안별 멘토
23.11.16(목), 오프라인



● 기록을 어려워해서 참여한 멘토링이었어요! 저만의 기록 방법을 찾아 보면, 2024년에는 '다이어리 쓰기'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록에 있어서 강박을 주의해야 한다는 멘토님의 말씀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기록은 결국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 앞으로의 기록은 예쁘게 꾸미고 보기 좋은 것보다 나를 위해 해야겠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기 위해 막 쓰는 기록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 이번 멘토링은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오프라인 멘토링의 이점은 멘토님과의 상호교류에서 오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소 꾸준한 글쓰기가 잘 안되던 게 고민이었던 저에게 멘토님의 과거 경험이 큰 동기 부여로 다가왔습니다. 꾸준함은 나 말고도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았고 남의 시선보다 온전한 '나'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멘토님께서 Notion 앱을 이용하여 각 분야별 노트를 만들고 나만의 일기장을 써 내리간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앱이었지만 쓰면 쓸수록 더 생각을 체계화하고 차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란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Notion에 그룹공유 기능도 있어 강원랜드 멘토링 때 하이드들과 수업자료 성취도를 한 눈에 보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멘토님께서 멘티들이 기록에 어려움을 가졌던 부분을 먼저 공감해 주시고,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멘토링이 아니라 대화하러 카페에 온 것 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노트와 함께 앞으로 남은 시간을 기록할 것을 추천해 주시면서 의욕도 북돋아 주셨고요. 함께한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였고, 개인적으로 힐링 되는 멘토링이었습니다.

내세는 AI, 트렌드의 중심에서 인공지능을 외치다

KT, 김진환 멘토
23.12.7(목), 온라인

● 문과생이라 이과생의 취업,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멘토링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이야기를 현직자의 말을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멘토링을 통해 인공지능의 범위가 내 생각보다도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았고, 주목받는 산업인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인생을 그려 오셨다고 느꼈는데, 나 또한 남은 대학 생활을 후회 없이 보내서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관심 있는 분야라 흥미롭게 들었고, 멘토님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셔서 그런지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점도 멘토님께 질문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IT 분야로 진로를 계획 중인데 그와 관련된 개발자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멘토님은 4학년 때 인공지능 쪽 진로를 정하셔서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하셨는데, 흥미를 어떻게 갖게 되었고 대학원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미래 설계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임직원 멘토링 WEEK

입시 영어강사였던 내가 강원랜드 서비스 사내강사?

강원랜드 총무팀, 김희성 멘토
23.8.21(월), 온라인

● 평소 자신이 없던 강의력 향상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지식 전달이 아닌 비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강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름길이란 없고, 꾸준함만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더 마음과 머리에 새기고 다시 공부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 그전에 들었던 다른 멘토링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다른 인생 경험과 다른 전공,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 보니 와닿는 느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강사로 활동하셨던 멘토님이라 그런지 말을 엄청 잘하셨고 정말 학원 선생님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멘토링에 진심하신 것도 느껴졌고요.

● 처음 들었던 멘토링이라 무겁게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멘토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2시간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OAD TO 강원랜드. 아시아나 항공 직원이 공기업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

강원랜드 식음팀, 송다은 멘토
23.8.22(화), 온라인

● 멘토님이 진로를 설정하실 때 고려하셨던 부분들과 이직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들으며, 취직 준비를 시작하려는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진짜 의외의 부분에서 현실에 대한 팩트를 알 수 있었다. 또 항공사에서 퇴사하고 강원랜드에 입사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다양한 것을 배우고 느꼈다는 것을 듣고,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워 J형 인간의 진로고민과 Gap Year, 공기업 취업준비

강원랜드 법무팀, 김보배 멘토
23.8.19(토) 온라인

● 어떻게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학 생활에 해보면 좋을 생각들과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그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졌어요. 또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등 실질적인 팁들을 알려주신 점들도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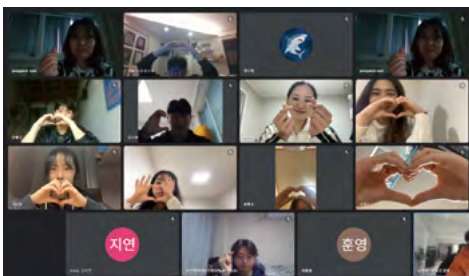
●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멘토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라 유익했어요! 멘토링 내내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회에서 각자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각보다 드문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공, 진로가 다른 쪽이라 더 새로웠고, 흥미로웠어요. 덕분에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디와 함께 듣는 멘토링 WEEK

현직 간호사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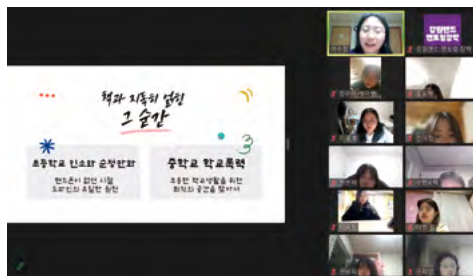
부천 다니엘 종합병원, 함정원 멘토
23.12.28(목), 온라인



-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스트레스로 인해 고민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 멘토링을 들으면서 여행과 명상 등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임용을 준비하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은데, 멘토님께서 알려 주신 방법으로 열심히 스트레스를 풀어볼까 합니다.
- 이번 겨울방학 때 내과 쪽 환자들이 많은 병원으로 실습을 한 달 다녀오는데, 오늘 멘토링이 실습을 처음 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토링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 현재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사회인 멘토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으신 크고 작은 일들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목표는 슬기로운 독서생활

장수초등학교, 이수정 멘토
24.1.6(화) 온라인



- 소그룹 멘토링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 책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독서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독서 멘토링을 하이디들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멘토링 활동과 나 자신의 독서에 도움과 배움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 하이디와 같이 할 수 있는 독서 활동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독서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멘토님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하이디와 함께 들어서 특히 의미 있었어요. 지루하지 않아서 유익한 내용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이ION × 사회인 멘토링 멘토링 데이

대학생활 알짜배기로 누리기(feat. 청춘)

현대모비스 금형기술팀, 김승환 멘토
23.9.25(월) 오프라인



- 멘토링데이에 참여하는 하이생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와 시종일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매니저님, 대학생들 위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던 멘토님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강연을 듣는 수동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짜로 하이생들과의 네트워킹이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쁩니다!
- 한참 진로 고민으로 머리 아프던 때, 멘토링을 들으며 '나도 충분히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4학년 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치면 쉽게 쉬어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기에, 그리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쉬어가라'는 멘토님의 말이 공감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면, 멘토님의 얘기를 되새기며 막연한 불안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저와는 전혀 다른 전공과 길을 가고 계신 멘토님의 대학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나의 진로와 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도전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과생에서 개발자로, 다시 작가로

네이버 파이낸셜, 김용찬 멘토
24.2.2(금) 오프라인



- 목표를 세우고 지키지 못하면 좌절감이 들어 커다란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는 멘토님의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일단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열린 저의 관심사를 찾아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 김용찬 멘토님께서 다양한 회사를 거치고 중간에 진로 변경도 하신 만큼, 다들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요! 그만큼 멘토링 내용이 너무 유익했고, 대학생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멘토님께서 하이생들의 사전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해 주셔서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 멘토님의 이력이 화려해 과연 공감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도 됐는데, 대학생이자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라는 조언이 고민 많던 저에게 결단력을 주었어요. 질문이 많았는데도 정성스레 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멘토 인터뷰

열정으로 반짝이던 시간, 덕분에 저도 힐링됐어요

강원랜드 미래전략팀 정준연 멘토



정준연 멘토와 함께한 임직원 멘토링.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2023년 8월 10일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의 나〉

Q. 멘토링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의 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Q. 멘토링 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멘토링 시스템에 이번 사회인 멘토링을 통해 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확장한다면 더 효과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멘토링 시간을 통해 저도 분명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참여를 결정했어요.

Q.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직장생활 5년 차를 넘기며 다소 지쳐 있던 저에게 하이섬과 하이드 분들의 반짝반짝한 눈빛과 말랑말랑한 생각을 보며 저 자신도 많이 환기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좋은 기운을 얻는 시간이었기에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좋은 자리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Q. 폐광지역 하이섬, 하이드에게 전하는 한마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모여 더 나은, 나를 나답게 하는 내일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많이 웃고, 때로는 힘든 경험도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여러분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내 이야기로 용기 얻길 바랬어요

신한카드 커넥트팀 김유하 멘토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2024년 1월 17일
〈나만의 콘텐츠 찾기〉

Q. 멘토링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평범한 일상에서 나만의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평범'에서 '특별'함을 들여다보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Q. 멘토링 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친구들이 사회적 관념과 틀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채 남들과 비교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저 또한 학창 시절부터 뛰어나지 못함에 많이 좌절하곤 했는데요. 끝없는 비교와 자기비판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극복했던 경험,

실제로 뛰어나지 않은 스펙으로 대기업에 취업하며 평범한 나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길 바랬어요.

Q.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참여해 주신 하이섬, 하이드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각각 소중한 특별한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 멘토링을 진행한 저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Q. 폐광지역 하이섬, 하이드에게 전하는 한마디!
저의 소소한 이야기가 하이섬, 하이드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나만의 길, 나만의 선택, 나만의 생각을 하며 나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그려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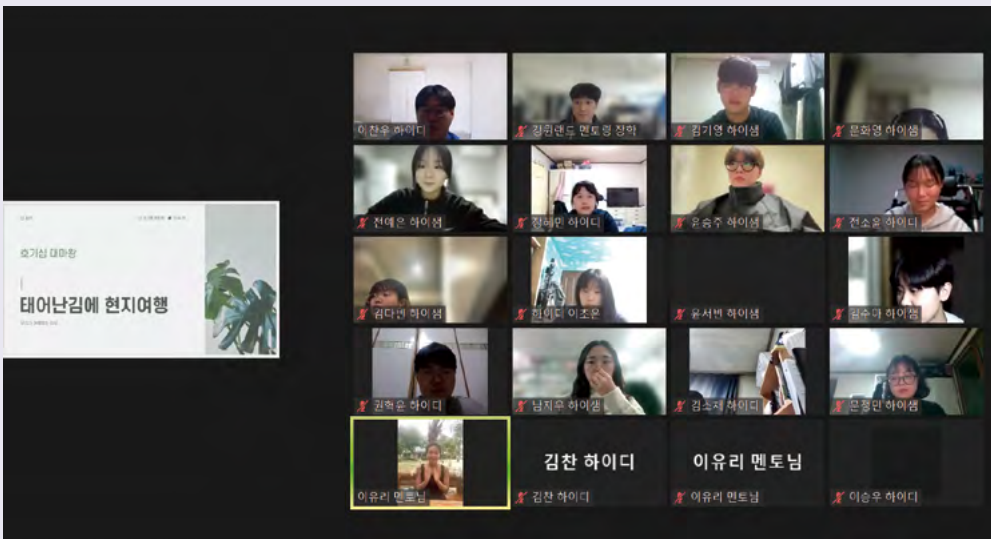


김유하 멘토와 함께한 하이드와 함께 듣는 멘토링.

실패 두려워 않는 힘과 자유 느끼며 살길



창작집단 '작당' 부대표 **이유리** 멘토



이유리 멘토와 함께한 하이드와 함께 듣는 멘토링.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2024년 1월 19일
**〈태어난 김에 현지 여행-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

Q. 멘토링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세계여행, 배낭여행, 해외 경험, 영어, 문화, 프리다이빙, 요가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마침 태국에 잠깐 여행을 와서 푸르른 배경으로 바다와 야자수를 보여 드릴 수 있었답니다.

Q. 멘토링 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시절 가슴 속에 품고 있던 큰 꿈 하나가 있었어요. 1년에 2번 이상 비행기를 타고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는

국제인이 되다는 것이죠. 저도 멘티들처럼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기에 다른 세상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했답니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감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Q.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하이드와 하이쌤들이 자신 있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펼쳐놓는 모습에 어찌나 대견하던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계획대로 다 이룰 수 없지만, 또 그로부터 배우는 바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Q. 폐광지역 하이쌤, 하이드에게 전하는 한마디

실패가 두려워도 도전해 보고 시도해 보기! 언제나 여행하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며 자유를 느끼길 바라며. 나마스떼!

사회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응원해요!



네이버 유저플랫폼 소속 **김용찬** 멘토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2024년 2월 2일
〈문과생에서 개발자로, 다시 작가로〉

Q. 멘토링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제가 가진 경험 안에서 개발, 출판, 취업 등 분야를 넘나들며 경험을 쌓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멘토링 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하던 멘토링과 다른 주제여서 흥미가 더 생기기도 했고요. 하이드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들었는데, 좋은 멘토링 경험을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응원하고 싶었어요.

Q.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멘토링 이전에 따로 아이스 브레이킹 했던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 사전에 질문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어요. 참석만 하고 별 질문 없이 끝나는 멘토링들이 있었는데, 그런 멘토링 대비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하고 알차답니다!

Q. 폐광지역 하이쌤, 하이드에게 전하는 한마디

앞으로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꿈꿔왔던 일 모두 잘되었으면 합니다.



김용찬 멘토와 함께한 멘토링데이.



1

EP 4.

하이쌤, 하이드의 역량을 부스트 업! 부스팅 캠프

부스팅 캠프는 매주 온라인으로 만나던 하이쌤과 하이드가 1박 2일 동안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캠프인데요.

나의 역량과 비전을 확인하고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동료 하이드,

하이쌤 그리고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와의 시간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만나던 멘토링 짝공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려니 떨렸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 즐겁고 알찬 시간을 함께 보내니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1일차에는 비전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가치관을 살펴보고 꿈을 설계하며

앞으로의 발걸음을 계획해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또 하이쌤-하이드의 케미를 엿볼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에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모의고사, 우리의 멘토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동료 장학생과 함께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왠지 든든한 동료가 생긴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2일차에는,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성장한 오늘'이라는 주제로 진로와 삶에 대해

멘토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2

프로그램 개요

행사명 부스팅 캠프

일 시 2023.8.9(수)-8.10(목)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1일차	오프닝 - 행사 소개 - 격려사
	세션 1. 비전설계 프로그램
	저녁식사
2일차	세션 2. 팀별 네트워킹
	아침식사
	임직원 멘토링
	마무리 및 귀가

- 1 부스팅 캠프에 참여한 하이쌤, 하이드.
- 2 ESG 상생협력 양현모 실장님의 격려사.
- 3 비전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 4 욕망카드를 골라보는 하이쌤, 하이드.



3



4

만족도 & 후기

1 비전설계 프로그램

86.6%

비전설계 프로그램을 듣고 나의 미래 진로 계획이 더 명확해지게 되었다

94.3%

비전설계 프로그램을 듣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2 팀별 네트워킹

88.5%

팀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남은 멘토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었다

90.4%

팀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장학생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3 임직원 멘토링

90.4%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링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84.6%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링을 통해 강원랜드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생생 후기

●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른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테스트를 통해 깨닫는 시간이었다.

● 단순히 꿈을 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꿈이 명확하지 않아도,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 하이디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취 멘토링 방향을 변화시켜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 학창시절에 겪었던 진로프로그램과 달리 흐름만 따라가도 즐겁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 하이디들이 왔었다면 정말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른 하이쌤들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하이디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나만의 생각이 아닌 팀원들의 생각도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다른 팀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앞으로 멘토링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 다른 하이쌤들은 어떤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토링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하이디들이 말하는 아쉬운 점, 희망하는 멘토링 방향을 들으며 저의 멘토링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남은 멘토링 기간 동안 이런저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동기 부여가 됐어요!

● 임직원분들의 말씀을 듣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각자의 얘기가 풍부하고 알차서 들을 가치가 있었어요!

- 1 즐겁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모의고사 정답을 맞히는 모습.
- 2 멘토링 활동을 돌아보고 계획 중인 참가자들.
- 3 네트워킹 활동 내용을 발표하는 하이쌤.
- 4 임직원 멘토링에 참여하는 모습.
- 5 임직원 멘토링을 진행하는 이하준, 정준연 멘토.



1



2



3



4



5

● 팀별 네트워킹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멘토링을 진행했는지 돌아볼 수 있어 좋았고, 다른 하이쌤, 하이디들에게 또 다른 수업방식을 공유받을 수 있어 멘토링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 꿈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공한 삶이라고 자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방향이 아니어도 다시 설계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고, 더 큰 독기를 품게 해준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간절히 원하던 일에 실패해도 길은 어디에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생각만 하고 실패했을 때를 생각한 적이 없는데,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졌을 때 이 강연 생각이 나 거기에서 위로를 얻을 것 같습니다.

● 극극극내향적이고 집순이라, 이런 곳에 와볼 생각도 못 했는데 나름 도전이랍시고 참여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더 강해져서 원동력을 얻은 것 같다.

● 현실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짐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계획해보려고요!

●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과 참여를 하였지만 막상 이야기도 듣고 활동도 하면서 나의 미래와 비전들을 더 크게 꿀 수 있고 더 뚜렷해지게 만드는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하이디들과 잘 만나지 못해 매번 아쉬웠지만 같이 이번에 활동하면서 지내니 더 친해지고 더 큰 유대감을 쌓을 수 있어 저에게도 하이디에게도 앞으로 멘토링은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 제발 부스팅 캠프 또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1박 2일 말고 더 길게~!

● 평소 수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하이쌤들을 만나면서 고민도 해결되고 수업에 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그동안 하이디 친구들과 친해질 시간이 없어 멘토링을 할 때마다 어색함을 이기지 못해 마냥 공부만 했는데 부스팅 캠프를 통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이 좋았습니다.

EP 5.

다채로운 꿈을 향한 여정을 떠나기 꿈키움 페스티벌

전국 폐광지역 청소년을 위한 진로 대축제,

〈일곱 빛깔 꿈의 여정, 꿈키움 페스티벌〉이 올해 더욱 알차고 즐겁게 돌아왔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대학생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진로 및 학과 이야기!

올해는 약 30여 개의 학과 부스와 함께 대학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대학 생활 부스와

입시와 취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진로 취업 부스도 함께 마련되었어요!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색을 찾길 바란다”고 조언해 주신

우리들의 큰별쌤, 최태성 강사님과과의 토크 콘서트까지!

다채롭게 반짝이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늘 응원합니다!

- 1 대학생 중등부스를 진행 중인 한동윤 하이쌤.
- 2 공과대학 부스를 진행하고 있는 꿈키움 서포터즈들.
- 3 하이디들의 꿈을 응원하는 꿈키움 서포터즈와 최태성 강사님.
- 4 최태성 강사님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



1

프로그램 개요

행사명 꿈키움 페스티벌

일 시 2023.12.2(토) 13:00~18:00

어떤 부스가 있었나요?

운영시간	문과부스	이과부스	문/이과부스	예체능/이색	대학생활	진로/취업
1교시	인문대학 (중문, 독문, 말레이시아)	자연과학 1 (수학, 생명과학)	정경대학 (행정, 경제, 경영)	예체능 (체육, 음향 제작, 디자인)	대학생활 맛보기 (중학생 편)	예비 고3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
2교시	사범대학 1 (영어, 사회, 지구과학)	자연과학2 (물리, 화학)	사회과학 (미디어, 사회복지, 정치외교)	이색학과 (군사, 호텔경영, 항공정비)	대학생활 맛보기 (고등학생 편)	
3교시	사범대학 2 (유아, 초등)	공과대학 (전자전기, 토목, 컴퓨터)	간호/의예	-	멘토생활 맛보기 (예비 하이쌤 편)	고교 인재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최태성 강사님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만족도 조사

89.1%

꿈키움 페스티벌 참여를 통해 진로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84.7%

꿈키움 페스티벌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와 꿈에 대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87.7%

꿈키움 페스티벌을 통해 꿈을 탐색하는 즐거운 경험과 동기 부여를 얻었다



2

생생 후기

● 선생님들과 댓글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문제도 풀어보며 많은 도움을 얻었고 미래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꿈꿈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된 좋은 시간이였다!

● 1부 온라인 학과 박람회에서는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학과만 골라 볼 수 있어서 시간 낭비도 없이 좋았다. 선생님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2부 최태성 선생님께서 진심 어린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해 주셔서 감사했다.

● 학과 박람회는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없었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평소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온 나에게 특히 소중한 경험이었다.

● 주변에 의해 나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라고 하신 강사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 1부에선 넉넉한 질의응답 시간 덕분에 궁금했던 점에 대한 상세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퀴즈 타임, 추첨 이벤트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있어 더 즐거웠던 것은 살짝 비밀! 2부는 다 같이 하하 호호하며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돼 덩달아 즐거웠어요. 최태성 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될 저는 많은 것을 배워 갑니다!



3



4



EP 6.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RE:START TOGETHER!

10개월의 여정을 돌아보고 장학생 활동을 축하하는 수료식이 2024년 2월 23일, 강원랜드에서 진행되었어요!
 수료식은 10개월의 활동을 돌아보는 23년 활동 총결산 영상을 시청하며 시작됐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하이드들의 깜짝 영상 편지를 보여 짱-한 감동까지 전했답니다.
 이어 10개월간의 멘토링 활동을 살펴본 멘토링 사례발표도 진행했어요. 하이드-하이샘과 팀을 이뤄 멋진 10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2부 네트워킹 시간에는 오랜만에 함께 모인 모두가 서로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해서 더 행복했던 우리의 마무리, 함께 살펴볼까요?



2

프로그램 개요

행사명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수료식
일 시 2024.2.23(금) 12:00~16:30

- 1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파이팅! 기념사진 촬영 현장.
- 2 수료증을 받는 이연우 하이드.
- 3 멘토링 사례를 발표 중인 김현 하이드(좌)와 위성진 하이샘(우).
- 4 열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모의고사를 푸는 하이샘과 알럼나이들의 모습.
- 5 키워드 토크 내용을 발표 중인 하이샘.

만족도 조사

100%

수료식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100%

수료식을 통해 활동 수료에 대한 격려와 축하를 받는 느낌이 들었다

93.4%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하이샘, 하이드, 알럼나이와 친밀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100%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3

생생 후기

- 2년 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치네요. 2년간 원활한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사무국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링 활동이 끝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다른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 벌써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마무리한다니 넘 아쉽네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도 하이ON도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미숙했지만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된 거 같아요!! 좋은 인연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어서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올해엔 더 좋은 하이샘으로 성장하고 더욱 도전하는 제가 되길!
-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보내야 한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수료식에서 하이드들, 동료 하이샘들, 매니저님들, 알럼나이 분들까지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멘토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료식에 참석해서 하이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아쉬웠던 기억보단 즐거운 추억이 많이 떠오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료 하이샘의 사례 발표도 들으며 저의 멘토링을 돌아볼 수 있어 좋았고, 우수, 최우수 하이샘들을 보며 동기 부여를 얻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이샘이 돼 꼭 최우수 하이샘이 되고 싶어요! 더 성장하는 하이샘이 되겠습니다.
-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듣고 이런 소속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풍부한 배움의 기회 속에 있다는 것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4



5



1



2

EP7. 글로벌 인재로 JUMP! 미리 보는 해외탐방

10개월의 성실한 활동을 통해 활동 최우수자로 선발된 하이샘에게 해외탐방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해외에 계시는 현지 멘토님과 사회인 멘토링, 글로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 예술, 역사 체험 활동과 네트워킹 프로그램까지,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한 우리는 해외탐방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더 많은 선택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곧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활동 최우수로 선발된 10명의 하이샘들이 미국 서부지역으로 해외탐방을 떠날 예정인데요! 작년 해외탐방의 이야기를 통해 해외탐방의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언젠가 여러분 모두 해외 탐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살펴봐요!

- 1 글로벌 인재 하이샘으로 jump!
- 2 현지 멘토님과 진행한 사회인 멘토링.
- 3 구글 멘토님과 구글 사옥에서 모습.
- 4 스탠퍼드 대학교에서의 하이샘.

2022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해외탐방

- 최우수 활동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 제공
- 해외 현지 사회인 멘토단과의 멘토링을 통해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 최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동료 하이샘 간의 네트워크 조성 및 유대 관계 증진

일자 2023. 7.10~7.17

내용 미서부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국립공원 문화 탐방
글로벌 기업 및 대학 방문 멘토링



3

만족도 100% 생생 후기

- 이번 해외탐방을 하며, 저는 제가 찾아낸 역할 속에서 어떤 걸음과 생각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깨달음은 후배와 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 저와는 또 다른 배움을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진하고 싶습니다.
-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Sorry'와 'Thank you'였습니다. 그만큼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아끼는 만큼 타인의 삶까지 존중하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본 미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겠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나의 가능성이 빙산만큼 있다는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꿈꾸고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 바로 네트워킹 시간에 진행된 밤하늘 별 보기였어요. 태어나서 가장 많은 별과 은하수 그리고 별뿔별을 보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울컥했어요. 이 광경을 꼭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동기와 목표가 생겼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정돈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밤이었습니다!



4

기대감 가득! 2023 우수 장학생들의 한마디

하이다, 하이샘들과 교류하는 게 좋아서 즐기면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임했는데, 최우수 하이샘으로 선정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해외탐방에서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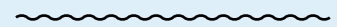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활동 하나하나에서 얻는 것의 깊어치가 무엇보다도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해외탐방에 가서도 구글, 아마존, 심플스텝스 등 다양한 사회인을 마주하며 견문을 넓히고 싶어요.
이 마음 그대로 후회 없이 경험하고 오겠습니다! :)

어떻게 하면 더 알찬 경험을 하고 올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해외에서 멘토링도 듣고 문화체험도 한다니, 너무 즐겁고 신날 것 같아요. 즐겁고 소중한 경험일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서로서로의 힘이 되어 보낸 하이쌤과 하이드의 10개월을 소개할게요.
환상의 호흡으로 인생의 잊지 못할 순간을 공유한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44

짜꿍 인터뷰

- 강유진 하이쌤 + 김승현·박여경 하이드
- 김수란 하이쌤 + 정다윤·최서영·최지혜 하이드
- 박도연 하이쌤 + 김동국·최현준 하이드
- 이희수 하이쌤 + 노은혜·최대범 하이드
- 임예찬 하이쌤 + 김세민·임은후 하이드
- 김경우 하이쌤 + 엄성식·윤준환 하이드
- 전이령 하이쌤 + 유지민·진현하 하이드
- 황루안 하이쌤 + 최지후 하이드

076

하이쌤 인터뷰

- 정선 김서인 하이쌤
- 태백 김희성 하이쌤
- 화순 이소민 하이쌤
- 문경 홍석환 하이쌤

084

하이드 인터뷰

- 문경 양예지 하이드
- 화순 이승우 하이드
- 영월 이연우 하이드
- 영월 현석주 하이드

092

홍보대사 하이ON 인터뷰

- 김다빈·민주현·박채원·심예지·이상하·이유진·최우영 하이쌤

열정으로 뚝뚝 뚫는 서로의 디딤돌



강유진 하이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유진 하이쌤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대학교에서 지구과학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꿈꾸고 있는 삼척 강유진 하이쌤입니다!

박여경 하이디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에 거주하고 있는 박여경입니다. 올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치위생학과에 다니게 되었고, 장래희망은 치위생사와 경찰관입니다.

김승현 하이디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에 살고 있는 취업이 목표인 전기과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Q. 우리 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뚫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강유진 하이쌤 단연코 열정 가득하다는 점! 같은 공간에서 만날 수는 없었으나, 자신의 환경에서 언제나 멘토링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준 하이디들 덕분에 더 에너지 넘치는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여경 하이디 하이쌤과 같은 지역 학교 선후배 관계라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쉽게 친밀해질 수 있어서 멘토링 시간이 즐거웠어요.

김승현 하이디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Q. 처음 만난 날 기분이 어땠나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강유진 하이쌤 두근거리는 마음과 약간의 걱정이 함께 했는데요. 잘 따라와준 하이디들 덕분에 즐겁게 마무리

할 수 있었죠! 기억에 남는 활동은 별자리 멘토링이었어요. 전공을 살려 하이디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어 좋았고, 직접 찍은 사진도 보여주며 즐거웠던 기억이 가득했기에 기억에 남네요.

박여경 하이디 하이쌤과 처음 비대면으로 만나기 전에 전화로 먼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하이쌤의 목소리가 참 다정하시더라고요. 좋은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시작부터 갖게 됐죠! 줌으로 얼굴을 봤을 때도, 첫 느낌과 다르지 않게 웃음이 예쁜 다정 그 차체인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지구과학 공부 시작에 아예 못 했는데 하이쌤께서 지구과학을 가르쳐 주시고 시험 대비 문제도 만들어 주셔서 재미있게 시험 준비를 끝낼 수 있었어요.

김승현 하이디 설레고 어떤 분일까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나요?**

강유진 하이쌤 멘토링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각자의 스케줄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오후에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녁에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미룰 수밖에 없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요일을 먼저 정하고,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미리 이야기해 멘토링

시간을 사전에 유동적으로 조절했어요.

박여경 하이디 비대면 수업은 주로 학교 방과 후 시간에 교실에서 했는데요, 학교 와이파이기가 잘 안 터질 땐 소통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화로 수업을 마무리한 적도 있고요. 하이쌤께 죄송했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김승현 하이디 선생님이 차근차근 해보라면서 격려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Q. 내가 하이쌤/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강유진 하이쌤 하이디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부듯하고 '하이쌤이 되길 잘했다'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당시 꿈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하이디의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학생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제 꿈을 향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박여경 하이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듯했고 감사했어요.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이쌤과 멘토링을 하는 시간이 되면 기대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옆에서 함께 공부할 동업자(?)가 필요했는데, 하이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김승현 하이디 멘토링을 잘 마무리한 지금이 제일 부듯해요!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수료식에 함께 참여한 강유진 하이쌤과 박여경 하이디.

Q.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강유진 하이셈 저에겐 도전이었어요. 교사라는 꿈을 가진 후로 이 길이 확실한지, 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거듭 고민했습니다. 그때 10개월 동안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고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대한 확신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여경 하이디 선물 같은 존재죠. 적지 않은 장학금과 공부 멘토 선생님을 만들어 주시고... 전부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장학금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절약하고 생각하며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훈련을 받은 것 같아 사회생활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승현 하이디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컴퓨터활용능력 시험 준비를 하는 박여경 하이디.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수료식에서 플라로이드로 추억을 남긴 강유진 하이셈과 박여경 하이디.

Q. 함께한 하이디/하이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강유진 하이셈 우리 여경 하이디, 승현 하이디! 함께 멘토링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하이디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응원할게요!

박여경 하이디 중요한 시기인 고3,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공부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하이셈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하이셈과 같이 밝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걱정해 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3년 감사했습니다. 2024년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박여경 올림!

김승현 하이디 일 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대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강유진 하이셈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꿈의 시작]**입니다. 막연하게 교사가 되고 싶던 저에게 왜 학생들과 함께하길 원하는지, 그러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거든요.

박여경 하이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가족]**이다! 가족처럼 나를 생각해주고, 내 꿈을 뒤에서 응원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으니까!

김승현 하이디 나에게 **[지도]**다.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지도를 만난 것 같기 때문이다.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강유진 하이셈 좋은 교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하며 얻은 기쁨을 나누는 과정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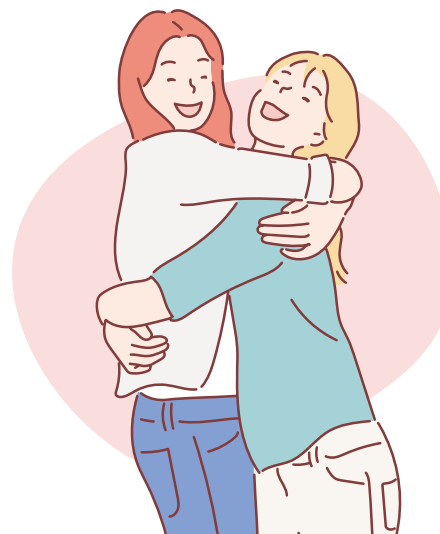


박여경 하이디

박여경 하이디 마음속 깊숙이 있는 사랑과 장점을 꺼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협력하는 경찰관, 치위생사의 모습일 것 같다.

김승현 하이디 취업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나!

하이셈 같이 밝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걱정해 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More TALK

Ask 하이셈

Q. 하이디와 함께 한 멘토링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교육은 정보 전달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멘토링을 통해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학교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배우는 것이 다 교육이라는 걸 느꼈죠. 하이디들 덕분에 단순한 정의에서 벗어난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디에게 서로 한마디.

어른이 된 하이디들의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신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이디들! 하이셈을 만나면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 줘!

Ask 하이디

Q. 하이셈 덕분에 이런 궁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김승현 하이디 선생님의 전공인 별자리를 더 공부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밤하늘을 볼 때마다 별자리를 찾곤 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셈에게 서로 한마디

박여경 하이디 참 고마운 언니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김승현 하이디 되게 떨릴 거 같고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요!

Q. 더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김승현 하이디 일 년 동안 정말 감사했고 건강하세요!

함께일 때 더 강한 우리



김수란 하이셈

김수란 하이셈

+

정다운·최서영·최지혜 하이디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수란 하이셈 문경 출신 하이셈 김수란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고, 나이를 먹어서도 수학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꿈입니다.

정다운 하이디 안녕하세요! 경북 문경에 거주 중인 정다운입니다. 저는 영상을 기획해서 찍고 편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PD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항상 불타오르는데, 게으름이 심각하게 자기주장을 펼쳐 쉽게 꺼지기도 한답니다.

최서영 하이디 문경에 사는 최서영입니다. 장래 희망은 체육교사입니다.

최지혜 하이디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물리학과 학생입니다. 이론 물리학자가 되어 양자역학 및 일반 상대성이론, 양자중력, 통일장이론, 암흑 에너지 및 물질에의 완성형 이론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Q. 우리 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뭉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수란 하이셈 가족 같은 사이가 우리 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할수록 제 친동생과 나이가 비슷한 하이디들이 동생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이디들은 점점 늘어가는 제 잔소리에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 저희 팀은 뭉치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네모 로직을 풀기도 하고, 끝이 없는 우주의 세계를 탐험하기도 하고, 같이 공부해 수학 성적을 올리기도 한 기억이 나네요!

정다운 하이디 다들 회로가 막혀서 당황하고 방향할 때 침착하게 더 나은 방법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성격이라 수업하면서 문제점을 금방 찾아내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어요.



정다운 하이디



최지혜 하이디



최서영 하이디

최서영 하이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녔었기 때문에 서로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던 거 같아요.

최지혜 하이디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업방식과 진취적인 토론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서슴지 않고 상호 간 의견을 피력하며, 심지어는 문제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대범한 기백이 장점입니다.

Q. 처음 만날 날 기분이 어땠나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김수란 하이셈 얼굴을 보기 전까지 떨림과 부담의 이중 콤보였는데, 막상 만나니 부담은 웬걸, 너무 귀여운 사촌동생 같던 걸요!

정다운 하이디 처음 하이셈과 만날 날, 줌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는데 낮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하이셈께서 너무 편하게 대해 주셔서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해졌답니다. 수업 시작 전 하이셈과 함께 했던 시작 전 인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를 묻고 수업 시작 전 약간의 TMI를 방출하시며 즐겁게 시작했거든요.

최서영 하이디 복소수 수업이 기억에 남네요. 이때 같이 푼 문제가 학교 서술형평가 시험에 나와서 풀이까지 완벽하게 맞았거든요! 후후

최지혜 하이디 학문에 대한 대화를 나눌 상대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냥 기뻐했습니다. 수학, 과학, 때론 철학까지 모든 주제를 아울러 대화하며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었어요.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나요?

김수란 하이셈 '바쁜 중고등학생도 없는 시간 쪼개어 참여하는 멘토링인데, 백수인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으로 극복했어요. 하이디들은 학교와 학원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고 나서야 저와 멘토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칠 때가 있었지요. 하이디들이 지치면 대답에서부터 표가 나더라고요. 그럴 땐 격려하고 칭찬해 주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했습니다.

정다운 하이디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집중이 잘 안될 때 힘들었어요. 그럴 땐 하이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다며 다독여 주시고 간단한 짧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휴식 시간을 가지며 극복했어요. 언젠가부터는 하이셈께서 멘탈을 단단히 잡아 주는 역할도 해주셔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마음을 잡을 수 있었어요.

Q. 내가 하이쌤/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김수란 하이쌤 하이디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는 걸 느끼는 순간이 가장 부듯합니다. 하이디들이 수업 중에 성적이 올랐다거나, 공부할 의욕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요.

정다운 하이디 수학 서논술형 평가 만점 받았던 날! 학교에서 예상 문제를 뽑아 봤을 때 하이쌤과 함께 풀었거든요, 덕분에 대부분의 수학 서논술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최서영 하이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스타일인데 하이쌤이랑 멘토링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배웠어요. 혼자라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것들도 하이쌤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최지혜 하이디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습득하는 단초를 얻은 것이요!

Q.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김수란 하이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2023년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함께 보내며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제 꿈을 향한 계획표였습니다.

정다운 하이디 자기 계발 학습 능력까지 얻을 수 있었던 큰 존재였습니다. 처음엔 멘토링까지 할 계획은 없었는데, 학기가 올라갈 수록 수학의 난이도도 함께 올라가면서 조금씩 벅차지더라고요. 하지만 멘토링을 하면서 수학 점수도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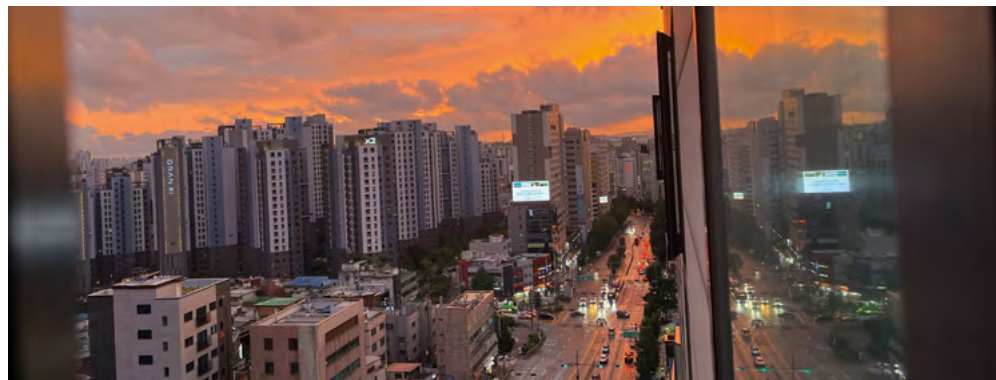
최서영 하이디 멘토링을 하기 전까진 공부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멘토링을 하면서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멘토링을 하면서 '그래도 해야지'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해준 것이 멘토링인 것 같아요.

최지혜 하이디 혼자라면 흐지부지 되었을 계획의 상당 부분에서 많은 긍정과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Q. 함께한 하이디/하이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수란 하이쌤 우리 하이디들! 부족한 멘티였는데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고, 각자 있는 지역에 놀러 갈 테니 맛있는 거 먹음 준비하세요!

정다운 하이디 부족한 저에게 많은 정성을 쏟아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어떻게 수학을 풀어야 할 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초반에 알려주신 네모로직... 자습 시간에 가끔 풀고 있습니다! 집중력도 향상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선생님과 했던 게임, 토론, 수업시간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서영 하이디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최지혜 하이디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다시 만날 날이 없어도 수축하는 우주에서 재회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실수가 허락한다면요!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대!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김수란 하이쌤 나에게 [**빛과 소금**]이다! 소중한 빛나는 인연을 만들어주고, 귀찮음으로 가득한 제 일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정다운 하이디 나에게 [**한 줄기 빛**]이다! 학업 등 진로와 관련해 방황하고 있던 시기에 하이디가 된 후부터 점점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서영 하이디 [**터닝포인트**]다. 공부를 포기했을 때 멘토링을 시작했는데 멘토링을 하면서 그래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지혜 하이디 [**거북이 등껍질**], [**무고한 휴식**]이다.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김수란 하이쌤 남을 잘 돕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서 결국은 모두가 따뜻하고 친절한 사회가 되는 것이 제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정다운 하이디 인정받는 방송국 PD가 되어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혹은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두 가지 갈림길이 있겠죠. 하지만 전 고비를 잘 넘기고 원하던 길로 잘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해요!

최서영 하이디 쪽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고 진로에 맞는 직업을 가지는 것.

최지혜 하이디 사회적으로 강요된 행복 대신 학문이 주는 풍요로운 기쁨을 누비며 살아가는 가난한 물리학도가 되어있을 겁니다.

More TALK

Ask 하이쌤

Q. 하이디와 함께 한 멘토링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앞서 말했듯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는데, 사실 모든 일이 마음만 앞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법도 생각해야 하고 다른 고려할 것들이 많죠! 하이디들과 같이 멘토링을 진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었고, 또 내가 당장 도와주는 게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디에게 서로 한마디.

우리 하이디들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올바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미래에 성인이 된 하이디들을 본다면 기분이 미묘할 것 같네요. 벌써 이렇게 컸다니... 정말 제 조카들 같거든요! 하이디들아, 다시 만날 날까지 서로의 길에서 열심히 달려보자!

Ask 하이디

Q. 하이쌤 덕분에 이런 궁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정다운 하이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에, 하이쌤 모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기숙사, 반의 수준, 야자 등등 궁금하던 걸 편하게 선생님께 물어보며 해결했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쌤에게 서로 한마디!

정다운 하이디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하게 된다면 많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제자가 될게요!

최서영 하이디 다시 만난다면 무척 반가울 거 같아요.

Q. 더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정다운 하이디 강원랜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무국, 하이쌤분들도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도 나도 처음, 함께 한 뼘씩 성장한 우리



박도연 하이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도연 하이쌤 화순에서 법학을 전공 중인 박도연 하이쌤이에요. 법학을 조금 더 오랫동안 공부해 보고 싶은 게 지금의 꿈이에요.

김동국 하이디 전라도 화순에 사는 김동국입니다. 현재 수능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고 장래 희망은 크게 뚜렷하진 않지만 운전직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최현준 하이디 문경 가은고등학교를 다니고 운동을 좋아하는 최현준 하이디예요. 저는 포기를 모르는 성격으로, 군인이 되고 싶어요.

Q. 우리 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뭉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박도연 하이쌤 자유와 책임감이예요.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하이디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약속을 책임감 있게 지킬 것을 강조했죠. 자유에 따른 책임을 배우며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기본을 다지기 바라는 마음에서요.

김동국 하이디 하이쌤이 정말 착하시고 계획성이 매우 대단하신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수업하면 생각보다 공감대가 많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최현준 하이디 자상하신 하이쌤과 하이쌤의 말을 잘 듣는 하이디가 특징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즐겁고 웃음이 피어나요.

● 박도연 하이쌤
+ 김동국·최현준 하이디



김동국 하이디

Q. 처음 만난 날 기분이 어땠나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박도연 하이쌤 마음속으로는 떨리고 걱정이 가득했지만 제가 티를 내면 하이디들도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차분하게 진행했던 게 기억나네요. 멘토링을 회고하던 날, 하이디가 인상 깊은 멘토링을 뽑았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저에겐 실패한 분야라고 생각했던 수학 공부 가 하이디는 가장 기억에 남는 멘토링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이해를 잘못하고, 자신감도 없는데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주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대요.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서 저도 이날이 기억에 박혔어요.

김동국 하이디 첫 수업부터 대화가 꽤 잘되었던 것 같아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시청했을 때 재밌게 감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최현준 하이디 낮을 많이 가려서 처음엔 좀 걱정했지만 하이쌤께서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덕분에 즐겁게 잘 마쳤어요.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나요?

박도연 하이쌤 멘토링 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멘티들이 마냥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흥미를 이끌어내고 참여도를 높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이디들이 잘 따라오고 재밌게 웃으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주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김동국 하이디 간혹 갑자기 일정이 생기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수업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 선생님에게 연락해 보강 날짜를 잡거나, 그 시간 이후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최현준 하이디(우)

최현준 하이디 수학 공부를 할 때 하이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알려주셔서 문제 풀이에 성공했어요.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Q. 내가 하이쌤/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박도연 하이쌤 멘토링 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오갔어요. 인내, 고뇌, 회고, 기쁨까지... 하이디의 모습을 보면서, 하이디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제 어린 시절도 생각해 보고 어쩌면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마음까지 짐작해 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재밌어할 때 힘이 났어요.

김동국 하이디 선생님과 복습노트를 발표했는데, 직접 공부하고 다시 남에게 설명하는 게 재밌고 복습도 확실히 되는 것 같아서 부듯했어요.

최현준 하이디 여행 계획서를 쓰는 활동을 했을 때 부듯했어요. 처음 해봐서 잘못했었는데 하이쌤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서 여행계획서를 쓸 수 있었어요.

Q.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박도연 하이쌤 어린 날의 저를 떠올리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아, 그때 그 선생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보셨겠구나'

하고 짐작해 보기도 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하며 몸소 느끼기도 했고요.

멘토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하이디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해준 것 같아요.

김동국 하이디 1년간 활동하며 진로를 함께 찾아주어 고마웠고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최현준 하이디 저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꿈과 희망이었어요.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Q. 함께한 하이디/하이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도연 하이쌤 작더라도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삶을 만들어가니 언젠든, 설사 이루지 못해도 꿈을 갖고 살아가길!

김동국 하이디 지각도 많이 하고 갑자기 수업 당일에 빠지기도 해서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도 일정 있으실 텐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고 그림에도 선생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보강도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최현준 하이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다!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박도연 하이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밝은 개울가]**다! 놀다가 개울물에 비친 나 자신을 본 것처럼 유년 시절의 저와 순수한 하이디들을 볼 수 있었어요.

김동국 하이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서포터(supporter)]**다! 나의 진로, 학교생활, 성적 등등 많은 면에서 1년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감사했어요!

최현준 하이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행복]**이다! 왜냐하면 멘토링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는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박도연 하이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무기력증이에요. 저는 늘 열정 넘치게 살았는데, 제가 요즘 그 무기력증에 빠져 버렸어요. 다행스럽게 하이디들 덕분에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무기력증을 이겨내고 다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제 바람이자 미래의 모습이에요. 저는 꼭 이겨낼 거니까요!

김동국 하이디 화려하진 않아도 소소하게 만족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지난 1년간 해왔던 멘토링 학습이 미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현준 하이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미래에도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미래에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하이디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신이 되려고 더 노력했어요.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해준 것 같아요.



More TALK

Ask 하이쌤

Q. 하이디와 함께 한 멘토링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집안에서 막내, 친척들 중에서도 막내를 맡고 있어서 저보다 어린 사람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일이 드물었어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해보면서 동생 같은 하이디들을 이끄는 방법, 애기 들어주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일부러' 되어본 첫 경험이라 부듯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디에게 서로 한마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제가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반갑겠죠? 그간 어떻게 지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어있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Q. 더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멘토는 처음이라 서툴렀음에도 늘 감사해하고 미안해할 줄 아는 하이디들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고마워, 미안해한 잘해도 사회생활 엄청 잘하거든요! 하핫

Ask 하이디

Q. 하이쌤 덕분에 이런 공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김동국 하이디 출신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그래도 같은 지역이라 '화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주변지인 중 함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최현준 하이디 하이쌤 덕분에 면접에 대한 공금증이 풀렸어요. 제가 원래 면접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몰랐는데 하이쌤이 알려주셔서 공금증이 풀릴 수 있었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쌤에게 서로 한마디!

김동국 하이디 다시 뵈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각자 행복한 상태로 만나면 좋겠어요!

최현준 하이디 선생님을 만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꼭 반갑게 먼저 인사드릴 거예요.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한 우리



이희수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수 하이샘 안녕하세요! 태백 지역 2년차 장기 지원 하이샘 이희수입니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에요. 향후 전공을 살려 제약 파트 연구원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라는 문장을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노은혜 하이디 태백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조향사 또는 도예가입니다.

최대범 하이디 태백에 사는 하이디 최대범입니다. 사회복지와 자동차 관련한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Q. 우리 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뭉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희수 하이샘 저희는 함께 뭉치면 깨달음이 두 배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이예요. 하이샘, 하이디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독서 수업에서 토의를 진행했을 때 하이디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는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노은혜 하이디 밝고 다정하시고 장점을 잘 말해주세요!! 함께 뭉치면 다른 사람에게 장점을 잘 말해준다는 장점이 생길 거 같아요.

최대범 하이디 서로 얘기가 잘 통하고 티키타카가 잘 되며 서로 이야기의 공감을 잘합니다.

이희수 하이샘

+

노은혜-최대범 하이디

Q. 처음 만난 날 기분이 어땠나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이희수 하이샘 멘토링 첫날, 서로가 서로를 어색해하던 그 공기, 분위기. 아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엔 하이디들이 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친구인지 가늠이 안 갔어요. 아마 하이디들도 마찬가지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빠르게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단의 조치로 매주 스몰토크를 하며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았어요. 엄청 솔직한 이야기까지 털어놓고 나니 하이디들도 차츰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한번은 하이디의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요. 하이디에게 축제 영상을 보여달라고 엄청 졸랐었는데 선뜻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내성적일 줄 알았던 하이디의 반전 매력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하이디의 추억을 공유하고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그 어떤 날보다 좋았습니다.

노은혜 하이디 매주 활동하며 하이샘께서 칭찬과 장점들을 말해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너무나도 이쁘고 다정한 말들이라 당시엔 제대로 반응을 못했지만 사실 엄청 행복했습니다!

최대범 하이디 세바시 강연을 보고 감상문을 쓰는 활동을 했는데, 그때 나온 강연이 당시의 저와 비슷한 상황을 담고 있어서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멘토링하며 최초로 5줄을 넘겨 감상을 썼었네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희수 하이샘 멘토링 시간을 조율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서로 불가피하게 안 맞거나 일정을 까먹고 지키지 못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서로 '그럴 수 있지~'하며 유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은 하이디에게 시간 약속과 관련된 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적도 있어요. 그 당시 멘토링 후반부라서 조금 느슨해진 감도 없지 않았죠. 하하. 멘토링의 원활한 흐름과 서로의 관계를 위해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보냈던 거 같아요. 다행히 하이디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멘토링이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어요. 하이샘, 하이디 모두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상호적으로 잘 작용됐다고 생각해요.

노은혜 하이디 제가 멘토링 시간을 무작정 미룰 때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쁜 말로 타일러 주셔서 약속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고 잘 극복한 거 같아요.

최대범 하이디 시간 약속을 잘 지켜서 어려웠지만 선생님이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서 다음 수업은 더 열심히 들어야지 다짐했었습니다.

Q. 내가 하이샘/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이희수 하이샘 대범 하이디와 화학 시험 범위에 대한 교과 멘토링을 진행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이디가 내일이 시험인데 벼락치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다급하게 이것저것 찾아 설명했던 게 기억나네요. 하이디에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개념만 뽑아 스파르타로 알려주고 무조건 나온다면 발표 치고 생년리를 부렸었죠! 다시 생각해 보니 하이디에게 너무 힘들었을 거 같기도 해요. 이 자리를 빌어 대범 하이디에게 사과를... (받아줄 거지?) 그래도 며칠 후 예상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공 수업 중에 큰 소리로 주변에 자랑했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노은혜 하이디 멘토링 하면서 하이샘의 생각을 들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란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감정들을 배운 거 같아요.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텐데, 함께라서 해낸 건 약속을 잘 지키고 매주 멘토링을 한 것과 책 한 권을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읽고 감상평을 말하는 수업들이요. 혼자라면 못 했을 거 같아요.

최대범 하이디 하이샘이 알려준 과목에서 점수를 30점이나 올려서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거든요. 혼자라면 절대 포기했을 텐데, 하이샘과 함께 이룬 일이라 생각해요.

Q.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이희수 하이샘 2023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터닝포인트'입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게 귀찮았던 제게 동기 부여와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났고 '이왕 열심히 하는 거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컸던 거 같아요. 하이디들과 소통하면 할수록 이들을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베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또한 사회인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제약회사, AI 개발자 등 진로 분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분야에서도 자아 성장과 관련해 배울 점이 많았어요. 성숙하지만 개성 있는 나로, 더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진 나로 한 단계 더 발전한 한해였습니다.

노은혜 하이디 꿈을 진지하게 대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최대범 하이디 한 단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함께한 하이디/하이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희수 하이쌤 우리 대범 하이디, 은혜 하이디 잘 지내고 있나요? 하이디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2023년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밝은 미소와 웃음이 매력적인 은혜 하이디, 하이쌤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줘서 고맙웠어요. 덕분에 힘이 나고 멘토링 하는 시간 내내 즐거웠던 거 같아요. 은혜 하이디라면 어디서든 똑 부러지게 잘 해내고 있을 거 같아서 걱정이 안 생겨요. 조용하지만 은은하게 웃긴 게 매력적인 대범 하이디, 수업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웠어요. 또 함께 스물토크하며 깊은 부분까지 속 터놓고 이야기해 줘서 고맙웠어요. 하이디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노은혜 하이디

이제 고3인데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응원해요. 하이디라면 자기 진로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은혜 하이디와 마찬가지로 걱정이 안 드네요! 농담이고 누구보다도 아끼는 두 사람, 2024년도 행복한 하루만 가득하기를! 수고했어요, 모두 모두.

노은혜 하이디 늘 밝게, 이쁜 말로 다정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천천히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또 감사해요. 그리고... 하이쌤 너무 예뻐요!

최대범 하이디 내년에도 만난다면 그때는 시간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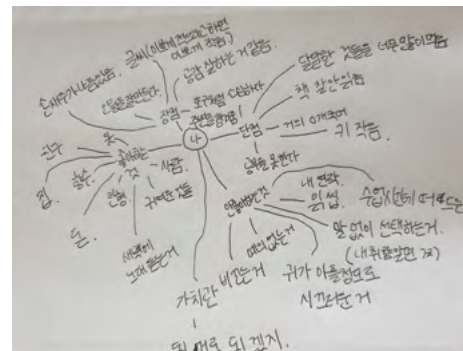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다!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이희수 하이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밤송이]**다! 까도 까도 속이 꽉 찬 밤 알맹이처럼 얻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부스팅 캠프, 사회인 멘토링, 꿈키움 페스티벌, 멘토링 활동, 이벤트 등 하이쌤, 하이디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 이 기회 덕분에 더 성장하고픈 욕심과 열정이 생기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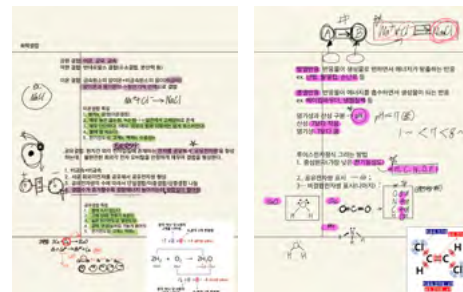
노은혜 하이디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요정]**이다. 마법처럼 꿈을 키워줬기 때문에.



최대범 하이디



멘토링 시간에 해본 '나' 마인드맵 작성하기.



희수쌤의 화학 멘토링 자료.

최대범 하이디 [한 줄기 빛]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없었다라면 이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테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텐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하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성장할 수 있어서 한 줄기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희수 하이쌤 개성 있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어딘가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등학생 때만 해도 남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이제는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해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해요. 우선 해외를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새로운 세상과 문화를 경험하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섞여보고 싶어요.

노은혜 하이디 꿈을 못 이루어도 좋으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멋진 어른이면 좋겠습니다.

최대범 하이디 대학생이 되어 멘토가 되고 멘티들을 맡아서 공부와 사회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More TALK

Ask 하이쌤

Q. 하이디와 함께 한 멘토링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하이디들과 만다르트 계획표를 작성했던 때가 기억에 남아요. SNS에서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르트 계획표를 알고리즘으로 접했을 땐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시도해 볼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러다 마침 하이디와 만다르트 계획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멘토링 때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이디와 작성하다 보니 어느새 2023년 만다르트 계획표가 완성돼 있더라고요! 혼자였다면 시도하기 어려웠을 텐데 하이디 덕분에 2023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작은 계획을 매일매일 습관화하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디에게 서로 한마디.

태백이 생각보다 소도시라서 마라탕을 먹거나 노래방을 가다가 갑자기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만났다면 엄청 반가울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는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아마 하이디들은 쭈뼛쭈뼛 서 있고 저만 호들갑 떨면서 뛰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범 하이디, 고3 잘 이겨내고 있나요? 밥 한 끼 사줄게요!! 은혜 하이디는 요즘 어때요? 맛난 거 먹으러 갈까요? :)

Ask 하이디

Q. 하이쌤 덕분에 이런 공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노은혜 하이디 하이쌤이 대학 생활 얘기도 해주고, 대학 시절에 해볼 만한 것을 추천해 주셔서 대학 생활에 대한 막연한 공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최대범 하이디 알바 추천! 유용한 알바 꿀팁도 받았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쌤에게 서로 한마디!

노은혜 하이디 기분 좋을 거 같고 다시 마주친다면 보고 싶었다고 말할 거 같아요.

최대범 하이디 아...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파인애플 피자 같은 우리,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임예찬 하이쌤

● 임예찬 하이쌤

+ 김세민·임은후 하이디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임예찬 하이쌤 저는 문경 하이쌤입니다! 교회실용음악 학부에서 드럼을 전공하고 있고, 장래희망은 언제든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음악 사역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세민 하이디 꿈은 물리치료사이고,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임은후 하이디 클래식 현악 전공을 희망하며, 비올리스트가 되는 것이 저의 장래 희망입니다!

Q. 우리 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뭉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임예찬 하이쌤 우리 하이디들 정말 순박한 시골청년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고 싶은 만큼 순수하고 귀엽습니다. 함께 zoom 하면 은후와 떠들고 있고 세민이는 표정변화 없이 정말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적절하게 조화가 맞아서 더 이상한 조합? 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아직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조언과 말을 해주고 싶은 하이디들이었습니다. 함께 뭉치면 마치 파인애플이 들어간 피자 같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민 하이디 대화를 자주 해서 좋았고 특징이라면... 음 오디오가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하

임은후 하이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피드백도 잘해주십니다.

Q. 처음 만난 날 기분이 어땠나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임예찬 하이쌤 하이디들이 굉장히 속스러워 하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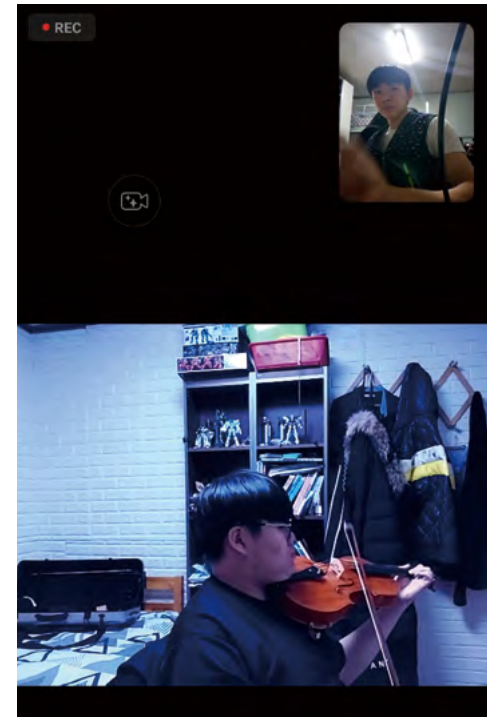
보였습니다. 은후는 그래도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 주었지만 세민이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키는 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서로 시험기간에 zoom 켜놓고 (자기 계발이나 하고 싶은 거 하기)를 하었는데 카메라 너무로 보이는 은후와 세민이의 집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세민 하이디 처음에는 떨렸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zoom으로 같이 공부했을 때가 좋았습니다.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즐거웠어요.

임은후 하이디 서로 말이 잘 통할까 걱정을 좀 했지만 zoom으로 자주 만나다 보니 금방 친해져서 좋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함께 카메라 켜고 공부했을 때. 다같이 공부하니 함께 으쌰으쌰 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나요?

임예찬 하이쌤 작년엔 기숙사를 살아서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zoom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하이디들과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들어 밤 10시~12시쯤에야 zoom 했거든요. 하지만 룸메이트가 자고 있어 말도 많이 못하고 불도 다 끈 채 감감하게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뭘 진행하기가 조금 난감했달까요. 하지만 역시 시간이 차차 지나니 해결되더라고요.



멘토링 시간에 비올라 연주를 보여주는 임은후 하이디.

**함께 카메라 켜고 공부했을 때,
다같이 공부하니 함께 으쌰으쌰 하는 기분이
들고 좋더라고요.**





임은후 하이디

김세민 하이디 어려운 건 딱히 없었어요. 좀 시간이 자는 시간이랑 비슷해서 살짝 번거로웠다는 것 정도?

임은후 하이디 모두 친절하고 말을 잘해주셔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Q. 내가 하이쌤/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임예찬 하이쌤 처음엔 몰랐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이디들에게 처음 카톡을 했을 때 장래 희망과 하고 싶은 일 등등 호구조사를 진행하면서 격려의 말을 함께 해줬는데 그 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순간 굉장히 부듯했어요. 당시 은후는 비올라를 그만둘지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 제가 한 말 덕분에 비올라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김세민 하이디 다 같이 대화하면서 천천히 알아가게 된 것과 좋은 멘토, 선배를 알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임은후 하이디 줌을 켜놓고 다 같이 공부를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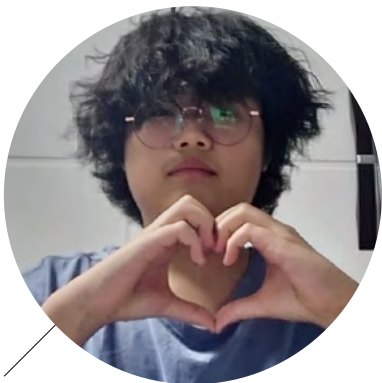
임예찬 하이쌤 교육이란 무엇인지 멘토가 가져야 할 자질과 덕목은 무엇인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김세민 하이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 알고 싶던 것을 알게 해준 고마운 창구 같은 존재예요.

임은후 하이디 진로 공부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곳.

Q. 함께한 하이디/하이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임예찬 하이쌤 은후야, 세민아 내가 부족할 때 만난 게 조금 많이 아쉽고 미안해. 그럼에도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내가 좀 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운동 꾸준히 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기 잊지 말자.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며 살길 바랄게. 하고 싶은 건 다 시도해



김세민 하이디

보고, 뭘 해도 늦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

김세민 하이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만나면 축구 경기 같이 보고 싶습니다.

임은후 하이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음악을 그만둘 뻔한 걸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대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임예찬 하이쌤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내 인생의 앞날에 깔린 울퉁불퉁한 돌길이나 가시밭길 위를 걷기 쉽게 해주는, 그런 서포트를 해주는 다리라고 느껴집니다.

김세민 하이디 나에게 [**힐 수 있던 공간**]이다. 대화하면서 웃고 떠들며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임은후 하이디 [위로]다. 진로를 포기할 뻔했는데 좋은 하이쌤을 만나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임예찬 하이쌤 음악 관련 직종에서 꼭 일을 하고 싶고 봉사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고 그렇게 CCM이 좋아져서 지금 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돈에 얽매어 사는 것이 아닌 진정 내가 하고 싶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김세민 하이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삶.

임은후 하이디 심리적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의 연주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는 삶이고 싶습니다.

More TALK

Ask 하이쌤

Q. 하이디와 함께 한 멘토링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요즘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뭘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이디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벌써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한 것 같아 대견하기도 하고요. 저도 진로를 위해 더 열심히 나가야겠다고 느끼게 됐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디에게 서로 한마디.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겠네요. 항상 화면 속 얼굴로만 보다가 실물로 보면 훨씬 환칠하고 더 성장한 모습이겠죠? 다시 봤을 땐 밥 함 목자~

Q. 더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뭘 하든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몸 관리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

Ask 하이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쌤에게 서로 한마디!

김세민 하이디 만나면 인사하며 카페에서 잡다한 이야기 나눠요.

임은후 하이디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물을 것이다. 그때 뵈면 밥 한 끼 하시죠!



물과 땅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웃음 공동체



김경우 하이쌤

김경우 하이쌤

+

엄성식·윤준환 하이디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우 하이쌤 안녕하세요! 정선 하이쌤 김경우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강원도 정선에서 보내고, 현재 융합경영 전공이라는 하이브리드 계열 전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HRM, 마케팅원론, 경영학을 다각도로 공부하여 최종적으로는 마케팅 혹은 광고 분야에서 빛을 내고 싶은 것이 제 최종 진로 목표입니다.

엄성식 하이디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 사는 엄성식입니다! 장래 희망은 소방관입니다.

윤준환 하이디 고한읍에 살고 있고 일본어과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입니다.

Q. 우리 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뭉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경우 하이쌤 자유로운 물과 우직한 땅처럼 전혀 다른 성격과 가치를 가졌지만 물과 땅이 서로 뭉치면 긍정적으로 상호 호환하듯, 우리 팀은 서로에게 각자 좋은 영향을 주는 팀입니다!

엄성식 하이디 일단 하이쌤은 친절하고 재미있게,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준환 하이디는 재미있는 말을 해주고요. 덕분에 뭉치면 항상 재미있고 즐거운 멘토링 됐어요.

윤준환 하이디 아무래도 웃음? 모이면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늘 웃음을 짓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처음 만난 날 기분이 어땠나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김경우 하이쌤 멘토링 하기 전에는 오로지 내가 모두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멘토링을 진행해 보니 하이쌤 혼자가 아닌, 하이디와 함께 꾸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엄성식 하이디 처음에 준환 하이디가 재미있게 해줘서 유쾌한 분위기였어요. 처음에 재미있고 뜻깊게 시작해서 기억에 남네요.

윤준환 하이디 처음 만난 날은 매우 어색했죠. 기본은 좀 모했다고 할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셋이 같이 사진도 찍고. 사진 찍는 걸 부끄러워서 기억에 남네요.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나요?

김경우 하이쌤 하이쌤과 하이디 모두 사람인지라 귀찮기도 하고 안하고 싶은 날이 있기도 마련입니다. 멘토링을 하는 모든 분에게 공통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멘토링 진도를 조금 천천히 하고 대신 하이디 진로에 도움될 만한 시사예능 프로그램 혹은 다큐멘터리 등 시청 자료를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멘토링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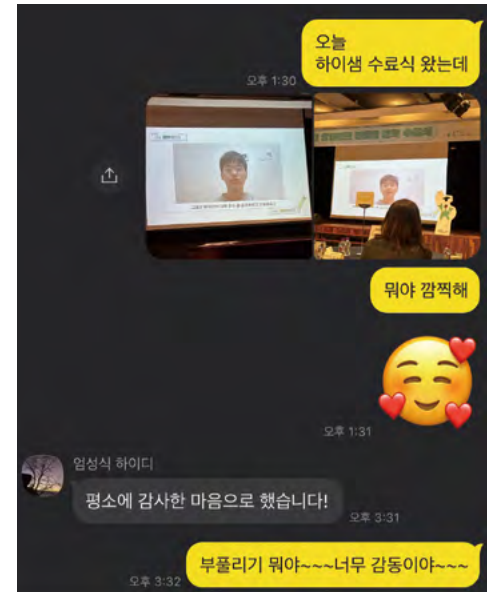
엄성식 하이디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만족스러운 의견이 나오면 그걸로 극복합니다!

윤준환 하이디 솔직히 하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 나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평소에 책도 좀 읽어보고 명상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제 감정을 명상으로 좀 다스리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Q. 내가 하이쌤/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김경우 하이쌤 멘토링 수료식에서 엄성식 하이디의 깜짝 영상편지가 나와서 매우 높았어요. 그 후 연락을 해보니 정말 비밀리에 진행했던 일이라 매우 깜짝 놀랐고, 감동도 엄청 받았어요.

엄성식 하이디 일상생활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함께 활동하고 의견을 공유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과정이 참 부듯했습니다!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수료식에서 보게된 엄성식 하이디의 깜짝 영상 편지에 놀란 김경우 하이쌤.

윤준환 하이디 나는 모르는 걸 알려줬을 때.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 간다는 것이 부듯하고 재밌다고 느낍니다.

Q.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김경우 하이쌤 2023년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았는데 멘토링은 그 안에서 쉼과 힐링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이디들과 서로 사담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큰 위로와 공감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엄성식 하이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의미가 가장 높았습니다!

윤준환 하이디 기회. 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링 장학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엄성식 하이다

Q. 함께한 하이다/하이שמ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경우 하이שמ 부족한 저와 함께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폐광지역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첫 만남과 마무리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함께한 하이다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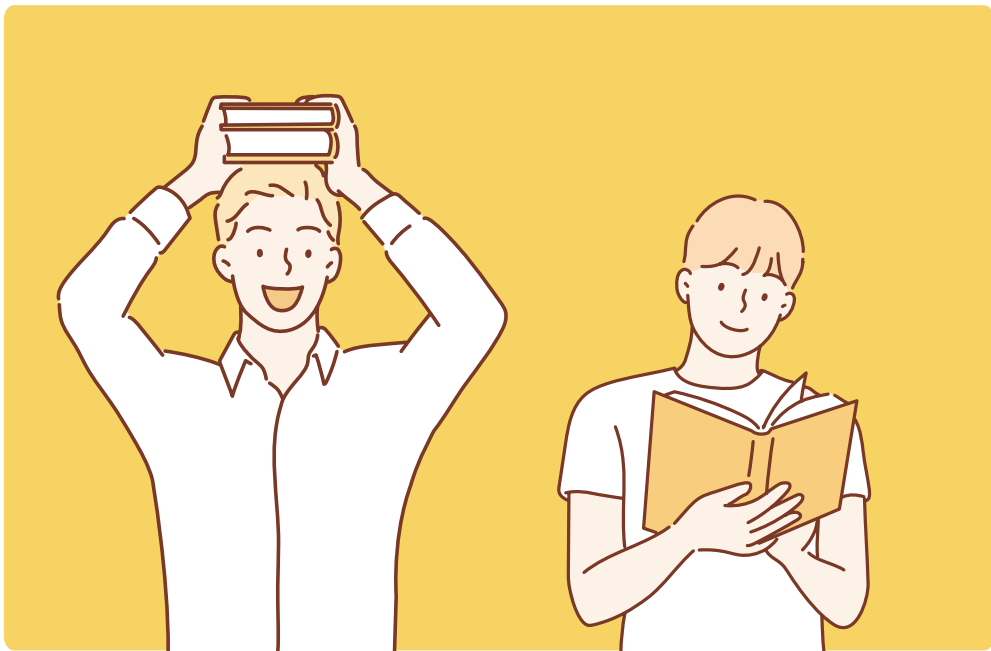
엄성식 하이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재미있었고 뜻깊은 멘토링 시간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환 하이다 다른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다!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김경우 하이שמ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내 인생에서 [**감사함**]입니다. 서투른 저에게 사무국 모두가 100% 지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해 보니 하이שמ 혼자가 아닌, 하이다와 함께 꾸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엄성식 하이다 [길잡이]다. 다양한 체험을 하고 활동을 통해 내 꿈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주는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윤준환 하이다 나에게 [**기회**] 또는 [**새로움**]?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김경우 하이שמ 다양한 일을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과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지 알기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엄성식 하이다 미래에는 노력해서 나의 꿈을 실현해서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윤준환 하이다 음 늘 깨어 있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면 좋겠네요.

More TALK

Ask 하이שמ

Q. 하이다와 함께 한 멘토링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평소 누구 앞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두려움이 없던 제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다들을 위해 수업자료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가르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져 육각형 인재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다에게 서로 한마디.

세상은 좁고 갈 곳은 많다!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혹시 알아? 나와 또 멘토링을 할지! 앞으로도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밝은 에너지로 세상을 꾸러가도록!

Q. 더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모든 하이שמ, 하이다 약 10개월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멘토링을 했던 지난날이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과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전 물러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Ask 하이다

Q. 하이שמ 덕분에 이런 궁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엄성식 하이다 하이שמ의 지역에 대해 말해 주셔서 그 지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윤준환 하이다 대학생 과제가 어땠고, 또 얼마나 많은 지도 알았어요. 과제 PPT 숫자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과연 나는 잘 할 수 있을지...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שמ에게 서로 한마디!

엄성식 하이다 다시 만나면 너무 신기하고 반가울 것 같습니다! 멘토링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윤준환 하이다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하면 즐거운 우리는 친구



전이령 하이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이령 하이쌤 안녕하세요. 정선 하이쌤 전이령입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며, 24년 기준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책임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최고보다는 최선을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지민 하이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지금 대학교에서 영화웹툰애니메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유지민입니다. 아직 장래 희망은 명확하지 않지만 웹툰 작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현하 하이디 안녕하세요! 전 삼척에서 거주했고 지금은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에 진학하게 된 하이디 진현하라고 합니다! 현재 꿈은 작가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계획과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중엔 글 쓰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 같습니다!

**Q. 우리 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뭉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전이령 하이쌤 고3 하이디 두 명과 대학 신입생의 케미를 잘 보여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차가 2살 정도 밖에 나지 않다 보니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론 친한 언니처럼 편하고 즐겁게 멘토링할 수 있었거든요.

유지민 하이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진현하 하이디 티키타카? 함께 있으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분위기는 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하게 만들죠!

●
전이령 하이쌤
+
유지민·진현하 하이디

**Q. 처음 만난 날 기분이 어땠나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전이령 하이쌤 멘티가 두 번이나 더 바뀌고서야 지민 하이디를 만날 수 있었어요. 순탄치 않았던 첫 출발 과정과 멘토링 기간 준비했던 입시 결과를 하이디들에게 전달받았을 때가 기억나네요. 물론 과정도 중요하고 힘들기도, 웃기도 했지만 그런 힘들음을 다 잊게 해준 하이디 두 명 모두의 1지망 합격 소식... 아직도 너무 대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유지민 하이디 낮가림이 심해 첫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이쌤이 먼저 다가와 줘서 즐겁게 수업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버킷리스트 작성하기였어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나 스스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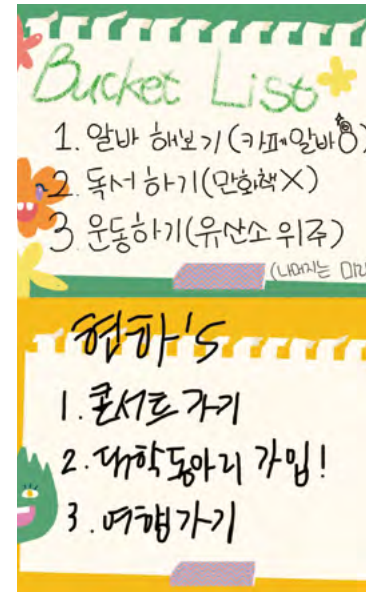
진현하 하이디 처음 만난 날은 아직도 생각나요. 저 혼자 너무 어색해서 쭈뼛거릴 때 하이쌤이 질문도 계속해 주시고 해서 덕분에 편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즐겁게 멘토링을 했던 거 같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그런 활동 등을 했는데 그 활동들을 통해 서로가 바라는 모습과 스스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가까워진 것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나요?**

전이령 하이쌤 멘토링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입시 후의 시간이었어요. 대학 수시, 자소서, 면접, 멘탈 등을 수업의 큰 부리로 잡았기 때문에 하이디들의 수시가 끝나고 나서는 수업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 후의 수업은 거의 인생이라는 타이틀에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매주 어떤 주제로 하이디들을 만나야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최대한 하이디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질문하고 진행하는 쪽으로 혹은 제가 정해준 후 괜찮은지 묻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지민 하이디 딱히 어려운 건 없었고 오히려 하이쌤이 자격증 따는 걸 도와줘서 정말 고마울 따름이에요.

진현하 하이디 제가 입시 고민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 매일매일, 멘토링 시간에도 걱정과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하이쌤께 이야기하니 저에게 조언과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멘토링.



대학생이 될 하이디들을 위한 '즐거로운 대학생활' 멘토링.

힘이 되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되고 무거웠던 고만들이 가벼워진 거 같았던 기분이 들었어요.

Q. 내가 하이쌤/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전이령 하이쌤 하이디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느꼈을 때가 가장 부듯했고, 그 도움이 결과가 된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결과는 저의 도움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이디들의 노력과 실행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케미와 시너지가 합쳐져 만들어낸 아주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민 하이디 장학금을 받아 진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을 때 부듯했습니다.

진현하 하이디 아마 입시가 가장 큰 거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입시 초보인 저에게 하이쌤은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이쌤의 경험과 도움으로 입시 생활을 수월하게 보내지 않았나 합니다!

Q.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전이령 하이쌤 한 해 동안 나를 덜 게으르게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 그리고 매주 내가 발전하고 성장함을 느끼게 해준 잊지 못할 대학 입학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같은 폐광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 도움이 조금이나마 전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뜻깊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유지민 하이디

유지민 하이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진현하 하이디 고등학교 3년 동안 해서 그럴까, 제 인생의 한 부분 같아요. 특히 2023년도는 마지막이기도 하고 하이쌤과 많이 친해져 더 기억에 남을 거 같고요!

Q. 함께한 하이디/하이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이령 하이쌤 현하, 지민 하이디에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너희와 함께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그저 행복이었어!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할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하이쌤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행복하자. 내 하이디여서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도 하이디들의 앞날을 응원해!

유지민 하이디 대학 생활 열심히 해서 저도 하이쌤처럼 멋있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진현하 하이디 저와 10개월을 함께해 주신 하이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더 많은 이야기는 이미 개인적으로 해드렸으니,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후후. 앞으로 하실 일들이 모두 잘 되길, 아니 잘될 거라고 믿어요! 하이쌤의 하이디로서 봐온 모습이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진현하 하이디



멘토링 시간에 준비했던 간식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대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전이령 하이쌤 [성장, 그리고 그저 행복]이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것이 매일 느껴졌고, 나를 믿어주는 하이디들과 함께한 시간은 그저 행복했기 때문에!

진현하 하이디 [기회]대 나에게 좋은 기회를 선물해 준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저에게 매일이 크리스마스, 생일인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선물임과 동시에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유지민 하이디 [도전]이었다.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전이령 하이쌤 미래라... 아직 뭘 하며 살지 확실히 갈피를 잡지는 못했지만, 왠지 저는 제가 성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것 같아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그 발판이 됐다고 생각해요. 남은 대학 생활 동안에도 기회가 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유지민 하이디 인기 있는 웹툰 작가!

진현하 하이디 아마 일에 찌들어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런 분야이다 보니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결과를 내려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꿈과 바람만은 이어졌으면 해요!

More TALK

Ask 하이쌤

Q. 하이디와 함께 한 멘토링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기분을 헤아리는 법을 더 배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고3이고 입시로 스트레스받는 시기인 만큼 감정적으로 더 조심하게 되고 한 번 더 하이디들의 기분을 헤아리게 됐던 거 같아요. 원래도 조언을 해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이디들에게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다 보니 조언에도 깊이가 생기고 해줄 이야기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며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디에게 서로 한마디.

가까운 하이디도, 가깝지 않은 하이디도 있지만 우연히 마주친다면 정말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우연히 길을 건너 마주친다면 난 너희를 한눈에 알아볼 거야. 함께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다가 '그땐 그랬지' 하며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랄게.

Q. 더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023년,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고맷습니다! 사무국에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Ask 하이디

Q. 하이쌤 덕분에 이런 공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유지민 하이디 단연 대학 생활!

진현하 하이디 다른 지역에 대해 잘 몰랐고 알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하이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삶과 인생을 좀 알게 된 거 같아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쌤에게 서로 한마디!

진현하 하이디 미래의 전 사뭇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 모습이 궁금하고 분명 하이쌤도 궁금하시겠죠? 다시 만날 땐 더욱 멋있는 모습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요!

몽치면 시너지 나는 우리



황루안 하이샘

●
황루안 하이샘
+
최지후 하이디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황루안 하이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번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최지후 하이디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고디자인과 신입생이고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습니다.

**Q. 우리 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몽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황루안 하이샘 저희 팀의 특징은 아무래도 '다양함' 같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며 주제가 많이 바뀐 편인데요, 영어, 국어, 글쓰기, 독서, 미술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함께 경험하고 공부했습니다.

최지후 하이디 팀 분위기는 대체로 좋았어요. 개인의 에너지가 높다가보단, 함께 몽치면 더욱 밝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거든요.

**Q. 처음 만난 날 기분이 어땠나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황루안 하이샘 설렘과 긴장감을 가득 안고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지요. 근데 우리 하이디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줘서 긴장감을 떨쳐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디들과 스무고개, 나를 맞춰봐 게임 등을 진행하며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각자의 취향을 알고 싶어서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물어봤어요. 그때 하이디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 추천을 했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기억에 남네요.

**하이샘과 함께 노력하지 않았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최지후 하이디 처음 만난 날 어색한 분위기를 숨길 수 없었지만, 차근히 풀어보려 서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샘에게 받은 입시 미술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려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나요?**

황루안 하이샘 정말 멘토링이 힘든 날에는 수다 타임을 가졌어요. 오늘 하루에 대한 얘기부터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들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다시 활력이 충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하이디에 대한 애정도가 올라가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면 다음 멘토링을 더욱 힘내서 할 수 있었죠.

최지후 하이디 하이샘과의 멘토링 시간을 맞추기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최대한 서로의 시간에 맞추려 조율하며 노력했어요.

Q. 내가 하이샘/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황루안 하이샘 지후 하이디가 진로 상담을 할 때, 미술 쪽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던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저도 고등학생 때 입시 미술을 했던 적이 있어서 더 응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미술을 그만둔 이유가 미술학원까지 가려면 차로 2시간은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희 페랑지역은 미술교육도 병행하기에 열악한 환경인 걸 알기에 더욱 도와주고 응원하고 싶었어요. 이 상담 이후에 미술 교육을 진행하며 기초 도형 그리기와 선과 면 채우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제일 힘든 게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힘주는 것과 같은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후가 제가 피드백해 주는 대로 잘 따라주고 그려줘서 미술 멘토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지후 하이디 3년 동안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이어서 부듯했습니다. 하이샘과 함께 노력하지 않았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Q.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황루안 하이쌤 2023년 중에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일회적으로 학생들과 만나는 교육 봉사를 했는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하이디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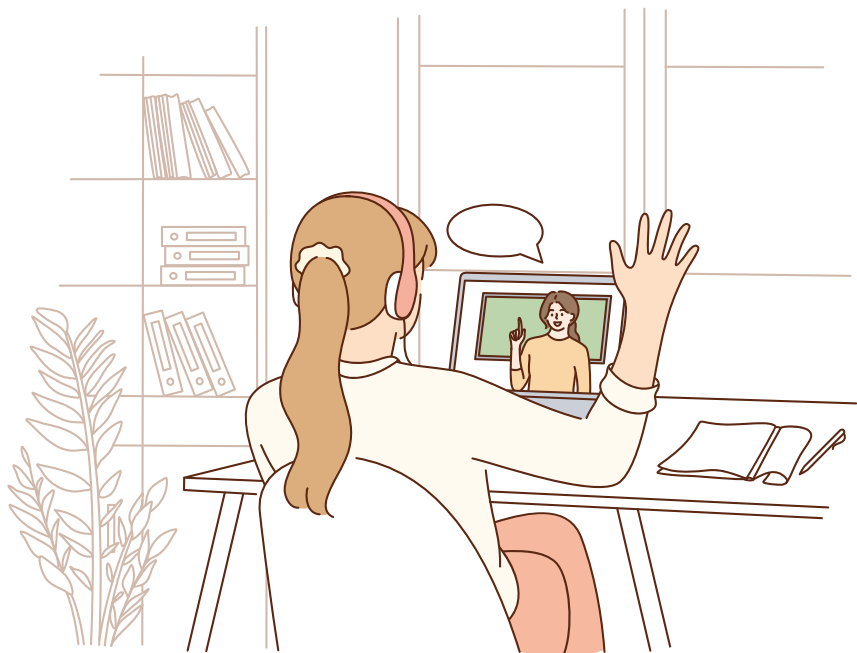
최지후 하이디 장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함께한 하이디/하이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황루안 하이쌤 난 사실 내가 20살이 되면 멋진 대학생

선생님들처럼 짠! 하고 될 줄 알았어. 근데 나의 20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숙하고 서툴렀던 것 같아. 능숙하지 못해서 수업할 때도 많이 해매던 난데, 멘토링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지후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고 기다려준 게 제일 큰 성장점이 된 게 아닐까 싶어. 내가 학생 때 봤던 멋진 대학생 선생님들도 처음엔 서툴렀지만 결국 지후 같은 학생을 만나며 완성된 게 아닐까 싶어. 나도 더 멋진 선생님이 되어서 지후를 다시 만나고 싶어! 40주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던 선생님이지만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 응원할게!

최지후 하이디 한 해 동안 멘토링 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이쌤 기억에 오래 남는 하이디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후 하이디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대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황루안 하이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후회 많은 첫 걸음]**이다! 모든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고, 후회가 있다면 다음번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최지후 하이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경험의 한 순간]**이다! 장학금을 받고 멘토링 수업을 받는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황루안 하이쌤 세계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 난민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도와주고 싶어서 교육 활동 경험을 쌓고 싶어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업에 참여를 결심하게 됐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소외된 지역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 상황에 더 귀 기울이며, 학교 후배를 대상으로 무상 과외도 해보려 해요.

최지후 하이디 저는 미래에 브랜드 쪽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More TALK

Ask 하이쌤

Q. 하이디와 함께 한 멘토링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제일 많이 성장한 건 역시 수업 진행 능력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많이 미숙했지만 수업을 진행해 가며 수업할 때 어떤 빠르기로, 어떤 말투로 수업해야 할 지 같은 사소한 부분부터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까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희 하이디와 멘토링 할 때 경제 과목을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경제 과목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을 준비하며 열심히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경제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기에 경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하이디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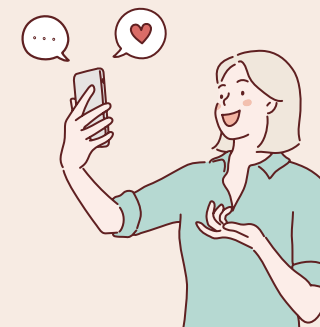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디에게 서로 한마디.

선생님이 그뻐 정말 멋진 선생님이 되어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우리 하이디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때 만난다면 선생님의 첫 학생들이 우리 지후랑 진희여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말해주고 싶어.

Ask 하이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쌤에게 서로 한마디!

언제 한 번 만나 뵈게 된다면 꼭 웃으며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선

더 큰 사람이 되는 법, 더 제대로 살아내는 법 배웠어요

김서인 하이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선 지역 하이쌤 김서인입니다! 21년도에 군사학과에 입학해 대학 생활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함께했습니다. 멘토링에 요령도 없던 제가 어느덧 3학년을 마친 고참 하이쌤이 되었고, 3년 동안 6명의 하이디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고등학교 시절 하이원 선상학교 프로그램으로 강원랜드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원랜드의 도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폐광지역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기에 언젠가 꼭 폐광지역 청소년들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신입생이었던 저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았던 좋은 영향들을 이제는 나눌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Q. 담당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올해엔 두 명의 하이디와 함께했습니다. 한 명은 작년부터 함께하며 부사관을 꿈꾸고 있고, 올해 새롭게 만난 다른 한 친구는 해양경찰을 꿈꾸고 있어요. 하이디들과 친해지려고 제 경험담, 사진 등을 많이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꿈꾸며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에 때로는 편하게, 때로는 진중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멘토링 활동을 했나요?

저희는 스터디 형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하이디들이 모두 고등학생이고, 일반과목 공부보다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준비가 더욱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르침보다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동기부여가 필요했기에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강의를 시청하고, 때로는 운동장에 나가 카메라를 켜놓고 운동도 하기도 했어요. 매주 하이디들에게 필요한 멘토링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진로 탐색, 운동, 강의 시청, 자습 등 유동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Q. '하이쌤'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하이디들과 진로 이야기를 나눈 후,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였을 때 가장 부듯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듣기

어려운 군인, 경찰의 현실을 이야기 나누며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하이디들은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불타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며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이디들의 꿈에 대한 열정이 무엇보다 가장 부듯했던 것 같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나요?

꿈키움 페스티벌에서 큰별쌤을 만났을 때요! 하이쌤으로 활동하며 하이디들에게 멋지고 믿음직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지만, 저 또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이었으니까요. 큰별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하이쌤들의 고민과 답변을 들으며 그동안 혼자 풀어보려 애썼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집에 가는 길에 큰별쌤의 사인 종이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대학 생활은 조용히 무난하게 해야지' 하고 다짐했던 저를 한 번에 바꿔 놓은 것이 바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입니다. 저에게는 같은 꿈을 꾸는 하이디들이 생겼고, 이들이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 했고, 하이디들을 가르치기 전에 저부터 갖춰진 사람이 되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매주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번 주의 나는 잘 살았나?' 성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Q. 사무국의 어떤 지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저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운동화'였습니다. 거칠고 험한 길에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함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멘토링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사무국은 항상 질책보단 진실한 위로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줬어요. 장학금을 비롯하여 멘토링 활동에 무리가 없도록 한 명 한 명 신경 써주시는 사무국이 너무나도 든든했습니다.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멘토링 내내 존댓말을 사용했었는데, 편하게 한 번 이야기해 볼 게! 3년 동안 만났던 하이디들 모두 나에게서는 너무 소중한 보물이자 대학 생활 성장을 함께한 친구야. 너희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앞으로 더욱 멋진 삶을



버킷리스트 쓰기, 운동하기 등 다양한 멘토링을 진행하려 노력했다.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 멘토링이 끝나고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게 되겠지만, 서로의 존재를 잊지 않으며 오래오래 기억되면 좋겠어. 너희가 내 하이디라서 자랑스럽고 감사해. 우리 또 만나자, 안녕!

Q. 나는 []이 되고 싶대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나는 [2인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동안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인분만 하자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나부터 잘하자는 다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인분은 거뜰하게 해내는 제가 되었고, 주변을 둘러보며 저의 +1인분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백

나 자신을 단단하게 키워준 시간

김희성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에서 도시와 국제법을 전공 중인 21살 김희성입니다. 저의 비전은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도보 디자인 설계입니다. 이동권은 행복추구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의 이유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도보 디자인 설계를 통해 제가 살고 있는 포항과 태백에 실현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장학금도 중요한 이유였지만, '배워서 남 주자'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하이디 시절에 하이샘에게 받은 배움이 유익했고, 감사해서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었고요.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이들을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돕는 것인 만큼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Q. 담당하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성진이는 성격이 긍정적이고 친화력이 좋은 친구라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까지도 잘 지내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찬웅이는 순수하고 생각이 깊어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어요. 하이디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이디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성진이와는 축구, 찬웅이와는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Q. 구체적으로 어떤 멘토링 활동을 했나요?

학습적인 부분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 해보려 했어요.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보며 궁극적인 공부의 목적과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 플래너를 직접 만들고 실천해 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학습 플래너가 성취감을 부여해 주어 공부의 즐거움은 물론 개인의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계속해서 시험기간마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은 삶에서 명심하며 살아가야 할 마인드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습으로 인해 우울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신문 기사로도 읽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하이디들에게는 이런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어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존중, 아름답다, 행동, 학습된 무기력 등의 단어의 참뜻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죠.

Q. '하이샘'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성적에서 계속되는 좌절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 상태였던 하이디가 멘토링 이후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을 때요. 하이디 중 한 명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싶는데, 자신은 과학을 잘하지 못하니 진학이 어려울 것이라는,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공을 정하고 프로그래밍 수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너무 감사했어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배움과 나눔을 동시에 얻었던 '꿈기움 페스티벌'이요. 하이디들에게 직접적으로 지방대학 생활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며 지방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강사로 오셨던 최태성 강사님의 "역사는 현재 살아가는 사람에게 버티는 힘을 준다"는 명언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에서 힘들 때, 행복했던 기억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역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 매우 감사했어요.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하 이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솔선수범의 태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제 가치관이 옳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어요. 전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기 전에 그 숙제를 미리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되니 아이들도 처음엔 잘 안 하던 숙제를 어느 순간 잘해오더라고요. 모범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과 말이 아니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더욱 확고히 믿을 수 있게 됐죠. 또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내 기분을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표현법을 찾으려 노력한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요.



성진, 찬웅 하이디와 즐거운 멘토링 타임.

Q. 사무국의 어떤 지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사무국이 매번 하이샘들의 고민 사항을 면밀히 살펴 도움을 주려고 한 점이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멘토링에 나오지 않으면 직접 따로 전화 해주기도 하고 사회적 멘토링을 서울에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니 온라인으로 열어 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가 아닌 느낌을 받을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사무국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과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애들아, 안녕. 나의 부족함으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아직도 떠나지 않네. 너희 속 깊은 사정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멘토링을 마무리하네. 진심으로 미안하다. 우리가 함께했던 멘토링이 너희의 삶의 행복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란다. 내가 항상 말했지. 너희는 가능성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 항상 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했으면 한다. 너희는 사랑받을 만하고 멋진 녀석들이니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웃음만이 가득할 거야. 부족한 나를 1년 동안 쌤이라 불러줘서 고맷다.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멘토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모든 사람(상황)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이디들과의 갈등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고 그들의 성장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고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나를 보며 나 또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모든 사람(상황)에게 배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존중이자 사랑의 표현이다.

화순

하이디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 됐어요

이소민 하이섬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순 소재의 능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하이섬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 지원 대상을 기존의 강원도 폐광지역 출신 대학생에서 보령과 문경, 화순을 포함한 대학생으로 확대하면서 지원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를 아신 고등학교 선생님의 제안으로 해당 멘토링 사업에 대해 알게 됐고요. 전공 중 발달 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담당한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 오호현 하이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 노선미 하이디와 함께 멘토링을 진행했는데요. 하이디 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해당 연령대에서 원하는 멘토링 내용이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그룹 멘토링이 아닌 개별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때는 라포 형성을 위해 질문지를 가져갔는데요. 아무래도 첫 만남이라 하이디들이 대화하는 것 자체를 많이 어색해하다 보니, 질문지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끌어 나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멘토링 활동을 했나요?

두 하이디들이 멘토링을 통해 얻어 가고 싶다고 말해준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호현 하이디는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고 하여 함께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해 보고, 일주일 후 작성한 플래너를 함께 보며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미 하이디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모르겠다는 말에 직업 적성 검사와 흥미 찾기 질문지를 통해 현재 관심사를 문서화하는 활동을 하고, 이후에 다양한 대학 학과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며 진로노트를 써보곤 했습니다.

Q. '하이섬'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하이디들이 스스로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말해준 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 온라인 멘토링에서 '2023 강원랜드 멘토링 되돌아보기' 활동을 진행하며, 멘토링을 하며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두 하이디 모두에게 질문했는데요. 두 하이디 모두 꾸준한 참여를 통해 기른 성실함, 처음에 멘토링을 통해 얻어 가고 싶었던 부분에서 성장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항상 멘토링을 진행하며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하이디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하이디들이 멘토링 덕분에 원하는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어서 너무 기쁘고 부듯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사회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동료 하이섬들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가진 고민을 나눌 수 있었고, 다른 하이섬들의 멘토링 방법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또, 하이섬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대학생이다 보니 대학 생활이나 진로, 취업과 관련한 각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사회인 멘토링을 통한 하이섬 네트워킹이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하이섬으로 참여하면서 청소년인 하이디와의 소통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을 공부하면서 배운 청소년들의 특성, 청소년들을 대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실전에서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 큰 경험이 되었는데요. 제가 배운 전공지식을 실생활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해보면서 전공에 대한 흥미를 더욱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멘토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평소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 소개 영상이나 항상 어려움을 느꼈던 경제 공부까지, 하이디들을 위해 준비한 멘토링이 저를 위한 멘토링이 되기도 했습니다.

Q. 사무국의 어떤 지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저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따뜻하고 다정한 발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돕는 발판임과 동시에 섬세한 피드백과 응원을 아낌없이 나누는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했거든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오호현 하이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중!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번 부족했던 제 멘토링을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처음 써보는 스터디 플래너를 매일 빠지지 않고 작성해 보내준 호현 하이디, 영상을 시청하면 꼭 성실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 진로 노트를 작성해줬던 선미 하이디! 두 하이디들의 성실함 덕분에 저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멘토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수많은 어른 중에 한 명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그 어른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 않았기를 바라요. 저와 함께한 열 달의 시간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즐거웠다면 저는 그걸로 이 멘토링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는 하이섬이 될게요!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빈칸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미루는 삶은 끝났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하이섬'으로 활동하면서 저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행복, 그리고 이 활동이 제가 표현하는 다정이자 사랑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

평생 가지고 갈 올곧은 삶의 자세 배웠어요

홍석환 하이섬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 중인 1년차 경북 문경 하이섬 홍석환입니다.

Q. 어떤 계기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학기 초 열심히 강의실을 향해 뛰어가던 중, 교내 게시판의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홍보 포스터 속 문경이란 단어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멈춰 선 기억이 납니다! 사범대와 교대를 준비했지만 공과 대학으로 지원한 저에게 너무나 흥미로운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돼 그날 저녁에 바로 하이섬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Q. 담당한 하이디 친구들과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2023년도 기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시온 하이디와 중학교 3학년인 하늘 하이디랑 멘토링을 하였습니다! 하이디들과 친해지려고 친한 형, 학교 형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황과 취미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학업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곤 했어요.

Q. 구체적으로 어떤 멘토링 활동을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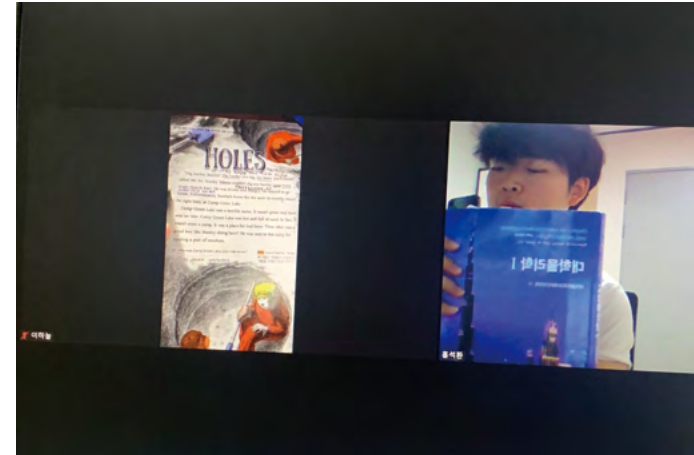
하늘 하이디는 공부 시간을 늘리고 싶어 해서 시험 기간 외에는 온라인 독서실을 통해 '앉아 있는 힘 기르기' 활동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음악 관련 진로를 계획 중이어서 화성학을 공부하며 중간중간 함께 수학 풀이를 함께하는 수업을 했죠. 시온 하이디와는 시험 기간에는 내신 영어 수업을 하고 여유시간엔 대학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멘토링을 했습니다! 시온 하이디와 고등학교 동문이라 내신 기출 문제나 내신 문제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멘토링을 했던 것 같네요.

Q. '하이섬'이라서 가장 부딪혔던 순간은?

하늘 하이디와 공부에 최대한 집중을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온라인 독서실 멘토링 중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멘토링 초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지며 공부했던 하늘 하이디가 멘토링 후반기에 가니 멘토링 시간 이후의 늦은 저녁에도 스스로 공부했던 사진들을 멘토링 카톡 방에 공유해주는 모습을 보고 하이디가 기특하기도 하고, 멘토링이 부딪치게 느껴진 순간이 기억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꿈키움 페스티벌이요. 중 고등학생 시기의 저의 가장



영어 공부도 하고 대학 전공 이야기도 하며 즐겁고 치열하게 보낸 멘토링 시간의 흔적들.

큰 고민은 입시와 진로였는데, 제가 했던 고민들을 대학생이 되었던 상태에서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제 발표에 녹여 공유할 수 있었거든요. 하이디들의 입시와 진로에 큰 도움을 주는 꿈키움 페스티벌이라는 너무나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하이섬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껴졌나요?

비록 공대에 진학했지만, 사범대와 교대를 꿈꿔왔던 저에게 아직 미련이 남은 교육자의 꿈을 강원랜드 멘토링을 통해 성취하게 되었는데, 멘토링을 진행하며 때론 다시 교육자를 향한 입시를 준비할까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통해 함께 학습하고 학업 성적을 통해 성장을 증명하는 하이디와 제 모습을 보며 공대 진학이 틀리지만은 않았던 선택임을 깨닫게 됐어요. 또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멘토링은 약속의 연속이었는데, 하이섬이라는 지도자 역할을 맡으며 생긴 책임 의식을 통해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 사무국의 어떤 지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접어둔 교육자의 꿈을 성취하게 해준 부딪찬 활동이었어요. 멘토링 중 생긴 하이디와의 소통 문제를 언제나 열려 있는 사무국 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든든했죠.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내년 강원랜드 장학에서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대학 원서 접수, 혹은 고등학교 원서 접수 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인연이 된다면 26년도 이후 멘토링 장학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나는 [**올곧은 하이섬**]이 되고 싶다! 멘토링을 진행하며, 학업에 손을 놓고 방탕한 세내기 생활을 즐기던 터라 '하이디보다 공부를 안 하는 내가 하이섬 역할을 할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 이후 하이디와 함께 공부하고, 지도하며 다시 학업에 열중하게 됐어요. 덕분에 저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경험과 자세를 유지하고 싶네요.





양예지 하이디

문경

받은 만큼, 따뜻한 마음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에 살고 있는 응급구조사가 꿈인 양예지 하이디입니다!

Q. 짝꿍 하이샘을 소개해주세요.

저의 하이샘은 같은 문경에서 살고, 웃는 게 예쁜 신민주현 하이샘입니다.

Q. 하이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주현 하이샘은 저에게 오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고 개그코드도 잘 맞고, 항상 밝게 웃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Q. 하이샘과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나요?

주로 수확수업 멘토링을 진행하며, 개념을 쌓고 문제도 풀고 모르는 문제 또는 심화문제를 물어보고 함께 풀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Q. '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꿈키움 페스티벌에서 내가 좋아하고 관심있는 학과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 때가 가장 좋았던 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어졌어요!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공부를 아예 포기하고 목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하고 난 후부터 공부할 상황도 되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기며 다시 공부에 집중하게 됐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방법도 깨닫게 되면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Q.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색으로 표현하자면 노란색인 것 같아요. 보기만해도 따뜻해 보이고 밝고 다정한 느낌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원랜드는 저에게 늘 좋은 영향을 주는 다정한 존재였습니다.

Q. 함께한 하이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약 10개월동안 함께 수업하고 가끔 우연히 만나 인사도 하며 여러가지 추억을 쌓아서 너무 좋았어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꼭 다시 쌤이랑 멘토링하고 싶어요!!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멘토링 활동과 꿈키움 페스티벌 등을 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친구 같이 즐겁게 보낸 하이샘과의 멘토링 시간들!



이승우 하이디

화순

나를 이해하고 믿는 법을 배웠어요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화순에 거주 중인 이제 고등학생이 된 이승우 하이디입니다. 저는 말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해 광고 기획자라는 꿈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취미는 먹는 걸 좋아해서, 요즘 요리를 조금 하기 시작했구요.

Q. 짝꿍 하이샘을 소개해주세요.

저의 멘토링 짝꿍이신 다빈 하이샘은 저와 같은 화순 출신이면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셨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Q. 하이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다빈 하이샘께 정말 감사한 점이 많았는데 그 중 항상 건네주시던 따뜻한 말들이 저를 가장 많이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낮도 많이 가리고 자존감도 낮았는데 다빈쌤께서 해주셨던 따뜻한 칭찬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하이샘과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나요?

기본적으로는 수학 개념 진도를 나갔고 중간에 다양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넘어져도
일어나게 돕고 지지해주는 지지대 같아요.**

게임과 상담, 영화 시청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고 멘토링 후반에는 모의고사 위주의 수업 또는 고등학교 및 진로 관련 상담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Q. '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부스팅 캠프나 꿈키움 페스티벌처럼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이디라서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인 멘토링을 통해서 나오는 다른 삶을 사는 이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물론 성적의 변화, 진로의 변화도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나를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나를 잘 알고 있기에 나를 믿고 행동하고, 또 경험했기에 더 나은 내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지지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색으로 표현하자면,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녹색?

Q. 함께한 하이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에 만났을 때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고 싶다.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하이디로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우 하이디

영월

우중충한 시간 속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연우 하이디입니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학과에 입학해 춘천에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다가 2020년 초에 영월로 이사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살던 곳과 많이 달라 적응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맑은 공기 마시며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는 제 인생 목표가 확고하지는 않았습지만, 영월에서 자동차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저의 꿈을 조금씩 키워 나갔습니다. 이제 제 꿈에서 대학교라는 한 계단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 번 제 꿈을 위해 달려 나가 보겠습니다.

Q. 짝꿍 하이썸을 소개해주세요.

옆 지역인 태백 지역 출신이신 함도현 하이썸입니다! 동네 친한 형 같았는데, 공부를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진 않지만, 가장 말이 잘 통하고 공감대가 비슷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Q. 하이썸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하이썸은 제게 음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음악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편안함을 주기도 하며,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하이썸은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막혔던 마음 한구석을 뚫어 주기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고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막혔던 마음 한구석을 뚫어 주기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고, 돌아보니 하이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Q. 하이썸과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나요?

학습, 정서, 진로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수능 최저를 맞추면서 과목별 시간 분배를 잘못했는데 그 부분도 도와주고, 대학 원서도 같이 봐주셨어요. 입시 준비를 하면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시며 의지를 북돋아 주셨고요. 솔직히 제가 희망했던 과인 기계공학과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과인지 잘 몰랐는데, 하이썸이 기계공학과라서 저에게 기계공학과에 대해 알려주셨고요.

Q. '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꿈키움 페스티벌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등학생 하이디에겐 입시라는 큰 과제가 있다 보니 여러 학과를 둘러보고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자신이 원했던 과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그 학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아무래도 학업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 학업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는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하고 난 후 하이썸께 학습적인 부분을 멘토링 받으니, 학업 성적이 향상됐어요. 또, 대학 정보 같은 것도 혼자서 찾기엔 힘든 점이 많았는데 그런 점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색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색 같습니다. 입시라는 우중충한 비구름이 몰려올 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비구름 틈 사이로 보이는 맑은 하늘처럼 작은 희망이 되어주었거든요.

Q. 함께한 하이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긴 말 않겠습니다. 만수무강 하십시오.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나는 [정몽구 회장(현대자동차 명예회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정몽구 회장처럼 자동차 업계에서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정몽구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딴 정몽구 재단을 설립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이썸이 되어서 미래의 하이디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꿈인 자동차 연구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해 저의 노력으로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현석주 하이디

영월

누군가를 선뜻 돕는, 따뜻한 사람 되고 싶어졌어요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월에 거주하고 있는 현석주 하이디입니다. 장래 희망은 주저없이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Q. 짝꿍 하이썸을 소개해주세요.

나현우 하이썸은 항상 하이디를 먼저 생각해주고,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친근한 분입니다.

Q. 하이썸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하이썸도 대학에 다니시느라 바쁠 텐데 멘토링을 잘 챙겨 주시는 부분이나 책임감 있게 행동해주시는 점이 감사했습니다.

Q. 하이썸과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나요?

학습에서는 영어 단어 암기, 국어 지문 등 멘토링을 하며 외우고 모르는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했고, 정서적인 부분은 시를 읽거나 쓰는 등의 활동도 하며 고민이 있을 때 가볍게 상담을 해주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처럼 나 또한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느껴 평상시에 선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채워졌습니다. 또 제가 명확히 원하는 직업이 없어 그 직업을 찾아 미리 준비해 가며 진로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요.

Q. '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모든 프로그램이 좋았지만 하나를 꼽자면 꿈키움 페스티벌에 참여했을 때요. 직접 관심분야를 골라 저희보다 선배인 여러 하이썸에게 질문해 즉각 답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흔하지 않은 폐광지역 학생들에게 큰 성장의 발판이 되는 듯합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평소 도전하고 싶었던 분야, 내가 정진하고 있는 분야에 더욱 스스럼없이 도전할 용기(자신감)가 생겼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처럼 나 또한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느껴 평상시에 선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나에게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넓은 세상에 저의 등을 밀어주는 바람처럼, 끝없이 파도치며 길을 찾는 바다처럼 청량한 푸른색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함께한 하이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이썸 그동안 바쁜 시험 기간에도 챙겨 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멘토링 시간은 더 이상 없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썸도 저와 함께한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저는 [**햇백**]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싶고, 조금은 정이 없어져 가는 요즘 저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신 하이썸과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무국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build up and go ON 더 새롭게 홍보대사 하이ON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홍보대사 하이ON은 기존 서포터즈 형태로 운영되었다가, 올해부터 홍보대사 형태로 시작했어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장학생을 대표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도 만들고 행사도 기획해 보며 하이쌤과 하이디들에게 즐거운 경험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이쌤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 멘토링데이부터 꿈키움 페스티벌에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대해 알려주는 멘토 생활 맛보기_예비 하이쌤편 부스 운영까지! 뿐만 아니라 하이쌤과 하이디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어요.
build up and go ON! 하이쌤과 하이디에게 다양한 추억과 성장을 선물한 홍보대사 7명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하이ON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홍보 콘텐츠 제작

매월 카드뉴스, 블로그, 영상 콘텐츠를 발행해서 강멘장의 소식을 하이디 하이쌤에게 전했어요!

행사 운영 및 진행

멘토링데이,예비 하이쌤을 위한 부스 운영 등 하이쌤과 하이디를 위해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어요

이벤트 진행

하이쌤과 하이디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 멘토링에 고민이 있는 하이쌤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어요!



김다빈 하이쌤
하이ON은 용기다!

2월 스튜디오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땐 첫 촬영 때와 달리 영상 촬영까지 하이ON이 스스로 다 했거든요. 다들 카메라를 잘 다룰 줄 몰라 스튜디오 사장님께 급히 배우고, 한 시간 동안 화분과 케이크를 어디다 놓을 지 구도를 고민하며 촬영했어요. 우당탕탕 그 자체였지만 그만큼 부듯한 활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이ON을 알고 있는 하이쌤을 만날 때 가장 부듯했고, 홍보대사 하길 잘했다고 다시금 느꼈어요. 저희가 만든 콘텐츠들을 사실 누가 보기는 하는 건가 싶었는데, 진짜 보는 하이쌤도 있고, 저희를 영상 속에서 봤다고 하시는 하이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매달 원하는 콘텐츠 팀(블로그, 카드뉴스, 영상)에 지원해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기획안, 시나리오 작성부터 피드백을 거쳐 콘텐츠를 만들었고, 이 모든 과정에는 하이ON의 협업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 능력과 기획 능력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 블로그,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각 콘텐츠에 따라 어떤 부분을 집중하면 좋을지 파악하게 됐어요.



민주현 하이쌤
하이ON은 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돋보기

첫 스튜디오 영상이었던 대학입시와 대학생활에 대해 영상을 찍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일상에서 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하이ON과 함께하며 친해질 수 있게 되었고, 입시를 준비하던 때와 대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 같은 지역 또래와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생각이 들어 부듯한 느낌이에요.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책임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하이쌤과 하이ON 역할 모두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이ON이라는 책임감이 하이쌤으로써까지 이어져 콘텐츠 제작도, 멘토링도 열심히 임할 수 있게 되었네요. 또한 하이ON을 하지 않았더라면 접해볼 수 없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러한 얹이 새로운 도전으로써 가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박채원 하이쌤
하이ON은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예코백

지금까지 하이ON은 카드뉴스팀, 블로그팀, 영상팀으로 나누어 다양한 콘텐츠를 발행해 왔어요. 올해부터는 홍보대사로 변화하면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고, 지금까지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알찬 하이ON 활동을 기획해 보고 싶어 지원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What's in my bag' 영상 콘텐츠 같아요! 기획부터 편집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했고, 또 하이ON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모습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결과적으로도 괜찮은 영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이ON 활동을 하며 하이ON 팀원들뿐만 아니라 사무국 매니저님, 또 촬영 감독님과 같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하이ON 활동을 하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 하이ON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예코백 같은 존재인 셈이죠. 올해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채웠으니, 이제부터 그 속에 담긴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더 추가하면 좋을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을 시작해 보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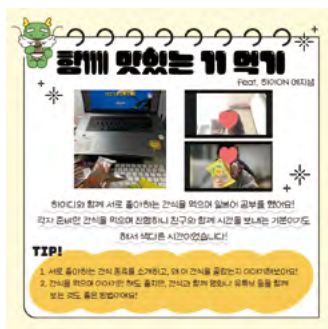
심예지 하이섬
하이ION은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디딤돌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과 교류하고 싶기도 하고, 2년간의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활동에서 동료 하이섬들과의 교류가 적어 아쉬운 마음에 대학생 하이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 싶어 지원하게 되었어요.
또한 제가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관심이 있어 활동 내용에도 흥미가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영상 콘텐츠였던 멘토링 브이로그, 카드뉴스 콘텐츠였던 미션카드 수행 콘텐츠입니다.
저는 올해 유독 하이디들과 교류가 어려웠는데... 하이디들과 좀 더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자유주제로 떠들다 보면 말문이 막히기 마련이었는데, 콘텐츠를 위해 함께 이것저것 함께 활동하며 즐겁게 멘토링을 진행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어요.
폐광지역 출신 대학생으로써 지역 후배들에게 더 많은 간접경험과 기회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 안달 난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좋은 인연들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뽐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SNS를 통해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이상하 하이섬
하이ION은 내 삶의 원동력!

하이ION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기여했고, 꿈키움 페스티벌에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폐광지역 청소년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금을 알리려 노력했어요.
특히 두 번째 멘토링데이는 기획팀장을 맡아서 하이섬들에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의 노력이 담긴 콘텐츠가 발행되거나, 행사들이 잘 마무리될 때 '하이ION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콘텐츠가 발행되면 몇 번을 다시 읽어보고, 돌려봤던 것 같아요.
하이ION 덕분에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이ION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도적으로 행사나 홍보부스를 기획해볼 일도 스튜디오 촬영을 해볼 일도 없었을 텐데요! 하이ION에서 동료 하이섬과 사무국 매니저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진 하이섬
나를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크레파스 같은 하이ION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금 처음 시작할 때 꼭 도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며 도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먼저 나서서 참여하고 도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홍보대사 활동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1월 영상 콘텐츠였던 멘토링 브이로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사실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하며 막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상 제작이 저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영상 제작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 좋은 마무리가 멘토링 브이로그였다고 생각해요! 내용적인 측면이나 영상도 매우 귀여우니 한 번씩 다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ION 간담회 때 하이ION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배 하이섬들의 이야기도 듣고 동료 하이ION과 더 각별하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하이ION을 하지 않았다면 얻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지의 스케치북 같은 저를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준 크레파스 같은 하이ION 덕분에 조금 더 멋진 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우영 하이섬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비, 하이ION

저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행사 기획을 하고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하이ION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냥 열심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잘 만들었다', '좋았다', '즐거웠다'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 덕분에 하이ION 활동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이ION 활동은 운동 새로운 것 투성이었어요. 단순히 콘텐츠 제작 능력이 향상된 것뿐 아니라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협동'해 나가는 모든 순간이 제 삶의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무언가를 할 때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하이ION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선사해준 것 같아요. 또한 사무국 매니저님도 저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어요.
하이ION 활동에 정말 많은 서포트를 해주셨고, 늘 다정하고 예쁜 말로 자존감을 채워주셔서 감사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얻은 건 콘텐츠 제작 능력, 협동, 좋은 사람들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하이ION은 저라는 꽃을 피우게 도와준 불비 같아요. 콘텐츠 제작, 행사 기획,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차곡차곡 쌓여 제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었으니까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 하이ION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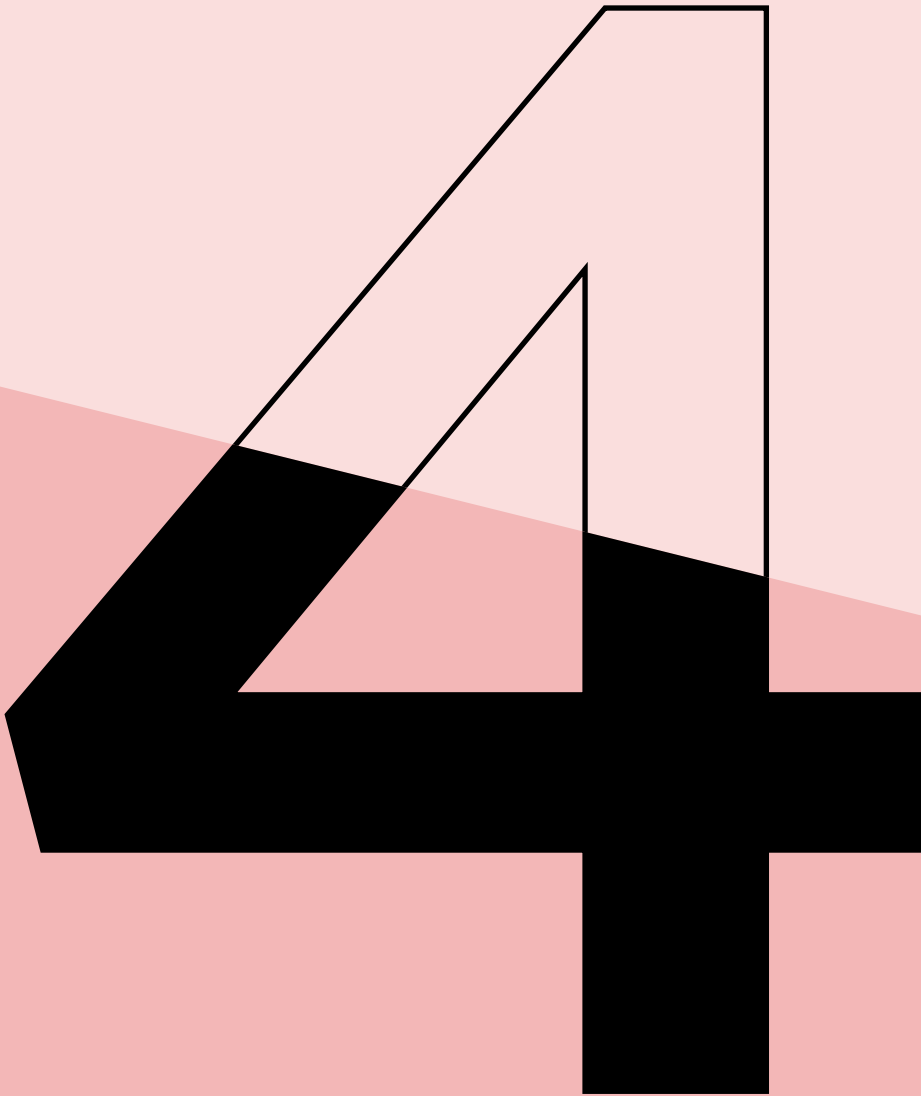
지난 10개월간, 하이샘과 하이디는 이만큼 더 자랐습니다.
하이샘과 하이디가 진심을 담아 꼼꼼히 작성한 기록을 통해
기쁘고 벅찬 마음 가득했던 성장의 순간을 만나볼까요?
더불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우리에게 가진 의미는 무엇일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098-101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성장 기록 | 하이샘 활동 보고서·하이디 성장 포트폴리오

102-103

나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성장 기록 - 하이샘 활동 보고서

10개월의 멘토링 여정 동안 하이샘과 하이디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모두가 진심을 담아 적어둔 멘토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이샘과 하이디의 소중한 생각과 추억을 읽으며 상상해 보세요.

chapter 1

함께 성장한 우리

삼척 김미지

이번에 'ZEP'을 활용하여 수업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ZEP에 들어와서 문제를 풀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구성했고, 영단어 문제를 풀면 다음 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온라인 사전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고 다음 주에 이 수업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들과 멘토링을 해볼 계획입니다. 만약 수업을 해보고 하이디 친구들의 반응이 좋다면 이를 다른 하이샘들도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자료를 개발하면서 느낀 점은 온라인 멘토링도 멘토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멘토링이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한 멘토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수업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삼척 강유진

이번 주는 사회의 이슈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방류되는 현재의 이슈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원전 사고와 오염수가 생긴 이유, 발생하는 과정,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이디들에게 학교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 이슈들을 말해주며, 우리 생활과 관련된 영향들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삼척에 사는 만큼 그 누구보다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의 삼척과 바다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 나눠보며 관계 형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향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생각을 나누는 멘토링이었어요.

문경 신지훈

19주 차 멘토링은 추석 연휴 이후 바로 시작되는 중간고사에 대비해 마지막 온라인 독서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이디들의 개개인별 맞춤형을 위해,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을 일부 첨가하였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내가 담당하는 친구들에게 더 나은, 더 성장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참여자, 하이디이기 이전에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단기간에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스킬을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항상 제가 담당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일만, 좋은 성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chapter 2

마음을 나누는 우리

태백 이희수

어느 순간부터 은혜 하이디가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주는 데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함박웃음을 짓게 됩니다. 안부를 물은 후 자기의 지난 한 주 일상 얘기하기에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마무리 인사에도 끝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성심껏 답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항상 남들에게 친절히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소신 있는 자세가 존경스러웠고 나도 '은혜 하이디가 배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자'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태백 김희성

아이들이 요즘 멘토링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숙제를 잘해오는 것이 정말로 부뚱하다. 솔직히 많이 부족한 나임에도 하이샘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며 나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다. 찬응이는 숙제를 통해 자신이 평소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돕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 너무 신기했다. 성진이는 요즘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주에 이 내용으로 칭찬해 줘야지.

영월 최우영

서진 하이디의 수능이 끝난 기념으로 굿노트로 '서진아 고생했어. 꽃길만 걸자'는 문구 아래 서진이의 사진을 넣고 꾸며서 줌 컷을 때 깜짝 이벤트로 보여줬다! 너무 좋아해서 부뚱했다. 수능이 어땠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앞으로 무얼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았다. 더불어, 겨울에 서울에 놀러 오라고 했다. (곤 스몰이라 같이 술 마시고 싶다는 귀여운 하이디였다!) 얼마 남지 않은 10대이자 새내기로서의 삶을 앞둔 하이디에게 어떤 시간을 선물해 주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했다.
하이샘-하이디라는 관계 성립 자체만으로도 이미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남은 멘토링도 행복하게 이어나가고 싶다.

chapter 3

내일을 꿈꾸는 우리

화순 박하은

'고정관념을 깨자!'는 주제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음 깨기'라는 보드게임을 접목해 얼음이 나를 설명하는 키워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격, 능력, 어울리는 전공이나 직업을 적어 보며 하이샘과 하이디가 서로의 답변과 생각을 말해보았습니다. 고정관념 첫 번째는 '편견을 깨자'입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 이미지와 전공, 직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보자'. 전공과 직업엔 다양한 능력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죠. 마지막은 '다르게 생각하자'로 '나'라는 사람은 복합적인 특성을 갖기에 자신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디들은 몇 개의 얼음이 아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태백 이현희

이번 주는 하이디들과 진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이희수 하이샘이 올려 주신 '진로 멘토링' 자료를 참고했고, 저희 하이디들의 특성에 맞게 조금 변형해 진행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마인드맵을 기획한 게 인상깊었는데, 하이디가 생각하는 나를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하이디들의 가치관이 특색 있고 다양해서 재밌었습니다. 반면 '관련 직업 조사하기' 부분은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한 학생들이 관련된 직업을 조사하는 활동이라 이해했는데, 저희 하이디들은 모두 구체적인 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요즘 유망한 직업, 이색 직업 종류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정선 이유진

예진 하이디가 공부하는 특수학문(소방 안전관리)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좀 도서관 형식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공부하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본인이 선생님이 되어 하이샘에게 설명하고, 설명한 개념을 머릿속에 잘 넣어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부 방법이 다행히도 예진에게 잘 맞았고 항상 집중이 잘 된다고 말해주 부뚱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성장 기록 - 하이디 성장 포트폴리오

10개월의 멘토링 여정 동안 하이샘과 하이디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모두가 진심을 담아 적어둔 멘토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이샘과 하이디의 소중한 생각과 추억을 읽으며 상상해 보세요.

chapter 1

함께 성장한 우리

삼척 김익현

올해 강원랜드 멘토링이 나를 더 다채롭고 풍부하게 해준다고 느낄 때가 많다. 마승현 선생님과 마지막 멘토링을 하며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긴 여정을 함께 해왔기에 그 성장의 폭이 더욱 컸던 게 아닌가 싶다. 멋진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어 영역에서 지식적으로 성장했고, 내신에 대한 생각이나 조연을 들으면 압박감에 휩싸이기 쉬운데 마승현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열정에 불타오르게 해주셨다. 1년 반 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울 따름이었다. 여러 부분(학습, 삶의 자세, 조연, 생활기록부 관리 등)에서 멋진 나를 만들어 주셨기에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잘 되었던 것 같다.
장학금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준 부분도 많다. 평소 사 먹고 싶은 것들, 나의 건강 생활을 위한 스포츠 용품,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다 보니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 계발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느꼈다.

영월 김예지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매주 한 번씩 2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니까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그리고 하이디 선생님께서 학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니까 학교 수행 평가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되고 자격증 시험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실제로 수행 평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뿌듯하고 나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다. 반면에 그동안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동안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학업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6월이었다.

삼척 최대현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 시기가 매우 빠르고 어른 되는 시간이 빠른 그런 학교입니다. 그동안엔 제가 학교 과정을 잘 쫓아가지 못했지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으로 잘 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장학이 없다면 저는 방향만 하다가 졸업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장학금을 감사히 잘 쓰고 제가 원하는 NCS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멘토, 저랑 같은 하이디 형을 만나 기쁘고 이 장학금을 준 강원랜드를 만나 행복했습니다. 질 좋은 수업과 지원으로 많이 성장한 거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저를 포함한 모든 장학생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chapter 2

마음을 나누는 우리

정선 이수연

부스팅 캠프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활동이 꽤 인상 깊었다. 첫 참가라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अच्छ고 진로에 도움 되는 내용이 많아 좋았다. 또 캠프를 통해 만난 하이샘, 하이디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다. 1박 2일이 짧게 느껴진다. 다음에도 한다면 꼭 신청해야지. 기말고사를 끝내고 멘토링이 여유로워지면 하이샘과 축제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와 홍보물을 같이 고민해 보고 만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선 전소윤

1월은 하이샘과 다양한 활동을 했다. 지난달은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것에서 그쳤지만, 1월은 멘토링 도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영화도 보고, 사회인 멘토링도 듣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활동을 했다.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적는 시간도 가졌다. 요즘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 어딘가에서 방향하는 듯한 나에게 자책이 커지고 있었는데 진심 어린 편지를 보면서 큰 힘을 얻었다. 힘든 일 있을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하이샘의 이야기만으로도 내게 의지가 되기에 감동이었다. 벌써 3년을 함께한 하이샘은 내게 존재 자체가 위안이다.

삼척 한서연

2023년 5월 17일 2023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에 최종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어떤 멘토분과 만나게 될까 궁금 반, 설렘 반이었다. 드디어 멘토님과 첫 zoom을 했다.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학교 음악실에 들어가 교복도 정갈하게 만지고 기다렸다.
하이샘과 수업 날을 정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정한 뒤 어색했지만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다. 내 하이샘은 운 좋게도 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언니처럼 챙겨주는 하이샘 덕분에 10개월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다. 10개월 동안 도움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이샘,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좋은 기회 주신 강원랜드 장학에 감사사를 전합니다.

chapter 3

내일을 꿈꾸는 우리

화순 한주하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고 자신이 없었는데, 하이샘과 함께 커리어넷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진행하며 내 적성에 맞는 직업과 능력을 알게 되어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추천받은 직업과 내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학과를 총합하여 하이샘과 함께 시간마다 심리학에 대해 토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 한층 성장한 나를 바라볼 수 있어 뿌듯했다. 진로와 미래에 관해 확신이 없었는데 새로운 진로를 알게 되어 뜻깊다.

삼척 천대희

8월에 한 멘토링 활동은 나의 미래 계획하기와 관심 있는 직업이나 학과를 정해서 PPT로 발표하기였다. 이런 활동을 하기 전까진 장래 희망이 딱히 없고 꿈도 맨날 바뀌어 관심 있는 학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망은 좋은지, 가면 무엇을 하는지 등을 잘 몰랐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하고 나니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 학과가 나의 장래 희망이 되었을 만큼 관심이 커져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다.
이번 달의 성장을 요약하자면 나의 미래와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계획하거나 정하게 되어서 뿌듯했다. 나의 미래로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다.

문경 송정화

10개월 동안 장학금을 사용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 시험도 부담 없이 접수할 수 있었다. 자격증 취득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다 보니 학교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딱 1명만 받는 기능장상을 받을 수 있었다. 2023년은 여러 대회에 나가 상을 많이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해라 나 자신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창 시절이 얼마 남지 않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학교를 빛내고 싶다. 방학엔 놀기보다는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일기도 쓰고, 책도 구입하여 읽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생활이 시작되면 더욱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란 []다!

[나무 뿌리]

나무뿌리가 영양소를 흡수해서 영양소를 얻어내듯이 저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으로 많은 것을 얻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윤태원 하이디*

[따뜻한 사랑을 주는 가족]

보이지 않지만 곁에서 많은 관심을 주고, 전화를 받을 때도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주셨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가족처럼 의지가 됐다. *박여경 하이디*

[네일클로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알고 난 후에 이루고 싶은 꿈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서 저에겐 네일 클로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친구들이 이 행운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서지현 하이디*

[돋보기]

나도 몰랐던 나의 잠재력을 강원랜드가 찾아주었고, 나에게 대해 더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폐광지역의 하이디 하이쌤과의 인연도 찾아주었으니까. *민주현 하이쌤*

[나침반]

강원랜드 멘토링을 하면서 나에게 잘 알게 되고 진로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소채 하이디*

[김밥]

처음에는 '김(나)'밖에 없었지만, 멘토링 장학을 하면서 다양한 '재료(경험)'들이 하나씩 추가되어서 하나의 김밥을 완성한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 멘토링 장학이란 '김밥'이다. *최다운 하이디*

[모노머]

화학에서 고분자(폴리머)를 생성하기 위한 단위체를 모노머라고 부릅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저와 화학결합을 이루어서 제가 고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성하 하이쌤*

[생태계]

생태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에 그 속에 작은 존재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좋은 생태계를 꾸려 주었기에 그 안에 속해 있던 제가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동윤 하이쌤*

[꿈 영양제]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꿈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최준우 하이디*

[램프의 지니]

요정 지니처럼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김주석 하이디*

[달콤한 딸기사탕]

3년이란 시간이 사탕을 먹는 시간처럼 빠르게 지났어요. 배울 것도 많고 행복한, 달콤한 시간이었어요. *임경준 하이디*

[또 다른 소통창구]

하이디들과 소통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게 성취감도 있고 즐거웠습니다. *이중현 하이쌤*

[카카오톡 Q&A]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서,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하이쌤과 멘토링한 덕분에 학교 선생님의 시험 출제 방식 등을 알 수 있었고, 하이쌤과 비슷한 계열 전공을 꿈꾸고 있어서 진로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김희원 하이디*

[안식처]

하이쌤에게 걱정거리를 말함으로써 조금 더 학교생활을 잘하게 됐다. 하이쌤한테 말하며 고민을 풀 수 있었고 많은 피드백과 조언을 해줘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이세은 하이디*

[일상]

멘토링 활동을 하며 하이디에게 무엇을 소개할지 일상에서 항상 고민하였기에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제 일상에 모두 녹아 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장은서 하이쌤*

[자부심]

어디 가서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말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과 사회인 멘토링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은신 하이쌤*

끝이 아닌 _____ 새로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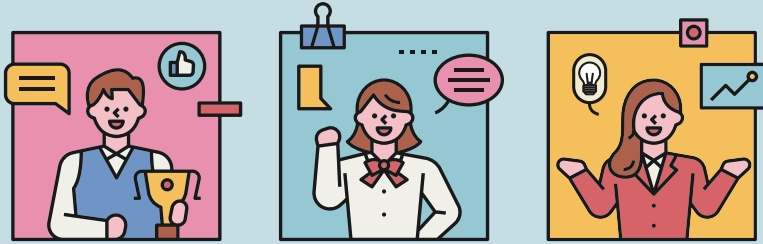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_____



_____ 그리고

**2024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COMING SOON!**



2023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폐광지역에서 키우는 내일의 꿈

